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曹 点 煥

初等學校 學年專擔制 運營 實態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Operating Realities of the Grade Teacher

System in Elementary School

2 0 0 1 年 8 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 育 行 政 學 科

教 育 行 政 專 攻

朴 愛 淑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曹 点 煥

初等學校 學年專擔制 運營 實態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Operating Realities of the Grade Teacher

System in Elementary School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 0 0 1 年 8 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朴 愛 淑

朴愛淑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1年 8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目 次

I. 緒論	1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의 目的	4
3. 研究의 內容	4
4. 研究의 制限點	5
II. 理論的 背景	6
1. 學年專擔制	6
2. 學級擔任의 役割과 職務	9
3. 擔任教師의 資質	14
4. 擔任組織의 形態 및 配定 方法	17
5. 先行研究의 考察	27
III. 研究의 方法	33
1. 研究의 對象	33
2. 測定道具	34
3. 資料의 處理	36
IV. 結果 分析 및 解釋	37
1. 學年專擔制 運營에 대한 認識	37
2. 學年專擔制 實施를 위한 先行條件	53
3. 學年專擔制 實施의 效果性	62
4. 學年專擔制에 대한 認識 差異	72

V. 要約 及 結論	91
1. 要約	91
2. 結論	94
3. 提言	95
參考文獻	96
附錄	99
ABSTRACT	104

表 目 次

<표 1>	주요배경변인별 분포	34
<표 2>	설문지 내용 구성 및 문항내용	35
<표 3>	학년전담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7
<표 4>	학년전담제 운영의 교과활동에 대한 인식	39
<표 5>	학년전담제 운영의 수업 기술 향상에 대한 인식	40
<표 6>	학년전담제 운영의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	42
<표 7>	학년전담제 운영의 특별활동에 대한 인식	43
<표 8>	학년전담제 운영의 학교(급) 업무경감에 대한 인식	44
<표 9>	학년 배정의 애로점 경감에 대한 인식	46
<표10>	학년 배정에 따른 교사 상호간의 불만 해소에 대한 인식	47
<표11>	학년전담제 운영에 따른 연구의 태만에 대한 인식	49
<표12>	학년전담제 운영 방법에 대한 인식	50
<표13>	학년전담제 확대 실시	52
<표14>	수업 시수 경감	54
<표15>	교과목 축소 조정	55
<표16>	초과수업 시수에 대한 경제적 보상	57
<표17>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	58
<표18>	정책 결정 과제의 해결책임	60
<표19>	수업기술의 향상	61
<표20>	학년전문가 양성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 증진	63
<표21>	학년전문가 양성	64
<표22>	자료의 활용에 대한 효과성	65
<표23>	자료의 보관에 대한 효과성	66
<표24>	공·사 교육비 절감의 효과성	67

<표25>	교재 연구의 시간 및 노력 절감의 효과성	69
<표26>	자기 연수의 충실에 대한 효과성	70
<표27>	학년전담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72
<표28>	학년전담제 운영의 교과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	73
<표29>	학년전담제 운영의 수업 기술 향상에 대한 인식 차이	73
<표30>	학년전담제 운영의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74
<표31>	학년전담제 운영의 특별활동에 대한 인식 차이	75
<표32>	학년전담제 운영의 학교(급) 업무 경감에 대한 인식 차이	76
<표33>	학년 배정의 애로점 경감에 대한 인식 차이	76
<표34>	학년 배정에 따른 불만 해소에 대한 인식 차이	77
<표35>	학년전담제 운영에 따른 연구의 태만에 대한 인식 차이	78
<표36>	학년전담제 운영 방법에 대한 인식 차이	79
<표37>	교과전담교사제 확대 실시에 대한 인식 차이	80
<표38>	수업 시수 경감에 대한 인식 차이	80
<표39>	교과목 축소 조정에 대한 인식 차이	81
<표40>	초과 수업 시수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 차이	82
<표41>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인식 차이	83
<표42>	정책 결정 과제의 해결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	84
<표43>	수업 기술의 향상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	85
<표44>	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 증진에 대한 인식 차이	86
<표45>	학년전문가 양성에 대한 인식 차이	86
<표46>	자료의 활용에 대한 효과성 인식 차이	87
<표47>	자료의 보관에 대한 효과성 인식 차이	88
<표48>	공·사 교육비 절감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차이	88
<표49>	교재 연구의 시간 및 노력 절감의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	89
<표50>	자기 연수의 충실에 대한 효과성 인식 차이	90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현행 초등학교 담임 배정 운영 방식은 한 교사가 전 학년을 순환하며 전 교과를 담당하는 순환담임제로 관례화 되어 왔다. 현재의 운영 방식도 많은 장점이 없지는 않지만 학급운영의 전문성, 학습지도의 전문성, 생활지도의 전문성 등 전문적인 운영 기법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최근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의 고도화, 학급당 학생수의 과밀현상 등에서 오는 교수 활동의 어려움 때문에 더욱 더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살펴보면 무리한 형편이다.

많은 초등학교 교사들은 1개 학급의 10개 내외의 교과와 아동의 생활지도 및 특별활동지도, 교실의 환경 구성, 제장부 및 공문서 정리, 가정과의 연락과 지역사회와의 관련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처리 등을 통해 만능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문인이 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 10개 교과는 각각 상이한 구조와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각기 다른 기능을 요구하고 있어 한 교사가 10개 교과에 대해 잘 알고 모두 잘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매년 학년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학급 담임 교사의 입장에서는 당해 학년에 대한 교육과정, 아동의 발달단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밀도 있는 수업, 질 높은 학습지도, 효율적인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기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가능한 많

은 학습자료를 동원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 실험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의 교수·학습자료 확보 및 실험·실습실의 설비는 매우 미약한 형편에 있다. 이 부족한 많은 자료를 교사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수집해야 한다. 애써 제작하거나 수집한 자료들이 다음해에 다른 학년을 맡으면 필요가 없게 되어 학년이 바뀌는 학년말이 되면 거의 모든 교사가 폐기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때 아깝게 버려지는 것에는 당해 학년의 눈 높이에 맞춰 조성해 놓은 교실의 환경 조성물들도 포함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들인 것들이지만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자료를 계속 보관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담임이 바뀌는 현실은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아 온 경력이 많은 교사나 처음으로 시작하는 초임교사나 수업지도 기술, 교재연구, 지도안 작성, 생활지도, 자료 준비 등에 있어서 거의 같은 부담으로 작용되며 따라서 경력에 따른 커다란 능력의 차이가 없어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지 못하고 교육의 효과성도 향상될 수 없게 되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최근의 초등학교는 빠른 속도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지식의 홍수, 정보의 홍수 등으로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아동에게 전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항상 연구하는 자세와 자기 연찬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다른 학년을 담임해야 하는 현실은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에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특히 고학년 담임교사에게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국개발원 연구에서는 주장하고 있다.1)

학년전담제는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선 보편적인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3-4년 이상 한 학년을 지도하는데 학년전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교실을 옮기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담임 배정 방식은 교사가 특정한 연령의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지도의 폭을 넓히고 수년간의 교육경험을 축적해 수업내용 방식을 개선해 나가는데 큰 효과가 있어 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또 매년 올라오는 아동들의 특성과 지적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해 볼 수도 있고 교실의 시설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지도와 학급경영의 비효율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매년 같은 학년을 담임하면서 그 동안 쌓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 정보, 경험을 아동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교사가 몇 년 동안 한 학년만을 맡아 지도하는 학년전담제의 정착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과전담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학년전담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부분적이거나 예체능 교과 위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과전담제는 초등교육의 정상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교과전담제와 함께 학년전담제가 조화를 잘 이루어 확대 정착된다면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담임제의 방법 중 초등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학년전담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 한국교육개발원, 교과전담교수제의 투입효과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7), p. 11.

2. 研究의 目的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학년전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전담제 운영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학년전담제 실시의 선행조건은 무엇인가?

셋째, 학년전담제 실시의 효과는 무엇인가?

3. 研究의 內容

첫째,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년전담제 운영에 대한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학년전담제 운영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인식을 배경변인(성별, 경력별, 2년 이상 동일학년 연임)에 따라 조사 분석하였다.

셋째, 학년전담제 실시의 선행조건은 무엇인지 조사 분석하였다.

넷째, 학년전담제 실시의 효과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4.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본 연구의 편의상 표집 대상은 경기도 북부 지역의 초등학교 교원 423명과 학부모 259명을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초등교사 전체와 학부모의 의견으로 대표하는 것은 제한이 따른다.

2) 초등학교의 학년전담제의 효과적 운영과 조기 정착에 관한 문제를 충실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교육정책, 교육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기적인, 다양한 방법의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국적인 일반화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Ⅱ. 理論的 背景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담임제의 방법 중 보다 바람직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년전담제를 운영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따라 학급담임교사의 역할 및 학급담임의 직무, 학년전담제의 특성, 장단점, 담임 조직의 형태 및 학급담임 배정 방식에 대하여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논문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삼고자 한다.

1. 학년전담제

1) 개념

1994년 9월 28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실시된 “국제 초등교육 학술대회”에서 정태범은 “초등교원 양성교육과 초등교과 교육”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학년전담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수업부담이 과중한 우리 나라 초등학교의 수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학년전담제의 실시가 절실하다고 했다.

학년전담제는 미리 교사를 학년에 고정시켜 놓고 해마다 계속 그 학년을 담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학년의 교육과정과 지도방법 및 당해 학년 아동들의 공통된 일반적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²⁾ 또한 반복적인 지도를 통하여 교과 지식의

2) 정태범, “초등교원 양성교육과 초등교과 교육,” 국제초등교육 학술대회 자료집 (1994.9): p. 52.

구조를 파악하여 전문적 지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료 제작을 반복할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축적 보관하여 이용할 수 있다. 비슷한 내용을 매년 반복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교수기술의 향상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학년전담제는 해마다 동일 학년을 담임하게 되므로 교재연구나 지도방법에 대한 연수를 게을리 하고 타성에 빠질 수 있으며, 교사들이 어느 특정 학년만을 선호할 때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점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제도운영의 연구를 통하여 해소하고, 전임 기간은 지역실정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년전담제의 특성 및 필요성

현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활동은 교과활동,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의 영역으로 나누어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있다. 교과의 교수 학습활동을 위한 학습지도안, 특별활동의 운영계획, 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은 바로 교육 프로그램이 된다고 볼 수 있다.³⁾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담임교사가 모두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량은 대단히 많다. 그리고 교재 연구나 기능 연마에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예체능 과목에 대한 문제는 교과전담제의 실시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겠고 또 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일반교과를 담당하는 학년전담제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또 현재 각급 학교의 인사내규에 의하면 저·중·고

3) 정태범,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 (제 15회 교육행정학 학술세미나 논문집, 1987.6), p. 56.

학년을 순환하기 때문에 매년 학년이 바뀌게 된다. 그리하여 해마다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교재 연구와 자료 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교과 전담교사가 한 과목을 계속 전담하듯이 학년전담제도 같은 학년을 계속 맡음으로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그리하여 자기연수에 더욱 힘쓸 수 있고 같은 학년을 오래 맡다 보면 그 학년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되어 학년 전문교사가 육성되고 나아가서는 질 높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날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의 학교는 과연 얼마나 국제 경쟁력이 있고, 교육은 질적으로 우수한가는 심각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는 지금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누가 더 잘 살고 질 높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냐는 경쟁, 그것은 국민의 실력과 그 국민이 만드는 국가적 생산력에 의해 판가름난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질 좋고 경쟁력 있는 국민을 키워내는 싸움인 교육전쟁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미국은 이미 미국의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과 수학실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가 되고 모든 성인들은 세계 경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는데 국가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⁴⁾

이상의 내용을 고찰해 보면 이제 우리 나라도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 있어서 학년전담제 실시가 확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재와 같이 학년 선호도가 다른 상황하에서는 고학년 교사들의

4) Michael W. Kirst, Policy Perspectives (America 2000)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p. 3.

수업부담 경감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즉 교과전담제를 확대 실시하고 특별활동, 학교사무 등을 상대적으로 수업 시수가 적은 저학년 교사들에게 많이 배정하고 일정 시간 기준으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으로 장치만 이루어진다면 초등교사의 전문성과 수월성,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학년전담제는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 학급담임의 역할과 직무

학급담임교사는 교실에서 직접 아동·학생을 매일 접하면서 교육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떠한 교무분장 직무에서 볼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학급담임 교사는 학급경영을 구상하고 전개하는 학급경영의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학급 경영방식은 아동의 학업 성취와 사회성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⁵⁾

학급담임교사의 역할과 직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급담임교사의 역할

교사가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단위는 학급이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역할 기대도 학급에서의 역할 수행에 그 초점을 둔다. 교사의 역할은 그가 수행하는 기능, 그에게 부여된 권한, 그의 개인적 자질과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체로 교사의 기본 역할은 수업의 역할, 아동의 사회화를 돕는 역할, 평가의 역할, 생활지도와 상담기능 등이다. 또한 Rendle과 Wattenberg는 교사의 역할을 ① 사회대표

5) 교육행정학회, 학교 학급 경영론 (서울 하우, 1996), pp. 509-510.

자로서의 교사 ② 판단자로서의 교사 ③ 지식자원으로서의 교사 ④ 학습 과정에 있어서 조력자로서의 교사 ⑤ 심판자로서의 교사 ⑥ 훈육자로서의 교사 ⑦ 아동들의 동일시 대상으로서의 교사 ⑧ 불안 제거자로서의 교사 ⑨ 자아 옹호자로서의 교사 ⑩ 집단의 지도자로서의 교사 ⑪ 부모 대용자로서의 교사 ⑫ 친구로서의 교사 ⑬ 적대감정의 표적으로서의 교사 ⑭ 애정 상대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제시하였다.⁶⁾ 이 중 교사의 활발한 역할이 요구되는 것은 학습과정에 있어서의 조력자, 훈육자로서의 교사, 아동들의 동일시 대상으로서의 교사, 불안 제거자로서의 교사, 부모 대용자로서의 교사, 적대감정의 표적으로서의 교사, 애정상대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다. 그것은 교사의 역할이 교사와 아동이 어울려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여러 역할은 결국 학급담임의 역할들이기도 한데 학급담임교사는 학급경영자, 학습지도자, 생활지도자로서 기능 하면서 이런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2) 담임교사의 직무

학급담임의 직무는 교수활동, 교육과정 계획, 교육활동의 평가, 생활지도, 특별활동 지도, 학교 및 학급 사무의 처리, 학급경영 및 학교행정의 참여, 학급의 환경 정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조 등이 있다.

이러한 직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F Rendle and W W Wattenbenberg, *Mental Hygiene in Teaching*, (N Y Harcourt, Brace and CO, 1952), pp 237-242를 인용한 심진구, 「초등교육과 교사」 (서울 : 교육과학사, 1986), p. 162.

(1) 교육과정의 계획

학급교사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교육 내용과 경험을 선택하여 조직하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먼저 계획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사는 교수활동 이전에 학습자에게 어떤 경험을 어떻게 학습하게 할 것인가를 계획한다. 이것이 곧 교육과정의 문제와 학습지도 방법의 문제이다. 따라서 학습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계획자로서의 임무와 학습과정 안내자의 임무가 수반되는 것이다.

(2) 교수활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교수활동과 아동들의 학습활동이다.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일이지만 교사의 지도가 항상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교에서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수활동과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교사의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교수활동이며 아동들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중심과제가 되는 것은 학습활동이다.⁷⁾

(3) 교육활동의 평가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학습경험을 선정·조직하여 이를 교수활동

7) 문낙진, 학교·학급경영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출판사, 1995), pp. 391-392.

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지도하고, 그 결과를 교육목표에 비추어 평가하여 환류되어야 한다. 즉 교육활동의 과정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경험을 선정·조직하여 이것을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활동을 통하여 학습하게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교육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정과 평가 기술이 필요하다.

(4) 생활지도

교사의 역할 중에서 학습지도자로서의 역할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생활지도자로서의 역할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선도하여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도와 조언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교사는 문제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들에게 자발적인 특별지도를 해야 한다.⁸⁾

(5) 특별활동 지도

학급교사는 아동·학생의 특별활동에 속하는 각종 집회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교육적인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급교사는 아동·학생의 학급회 활동, 클럽활동, 학교행사 활동, 봉사활동 등 집단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창의성을 발휘하고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8) 상계서, p.392.

(6) 교무분장 관련 사무의 처리

학급교사는 교무분장에 의한 학교사무와 담당학급의 학급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에 관계되는 것이 위주가 되나, 때로는 학생지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도 있어 교사들의 사무부담을 과중시키고 있다. 학교·학급사무 중 기계화, 전산화가 가능한 것은 이와 같은 체제로 전환시켜서, 사무처리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학생지도에 투입되어야 한다.⁹⁾

(7) 학급경영 및 학교행정에의 참여

학급교사는 학급담임으로서 학습자들을 직접 지도하는 일 외에 학급운영을 비롯해 학급의 환경 정비에 힘써야 한다.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학급 환경 정리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우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급 풍토를 개방적·자율적 풍토로 이끌어야 하고, 학생의 위생과 건강을 고려하여 아늑하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교실을 꾸며야 한다. 환경 정비에서는 물리적 환경 구성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심리적 환경 구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교 행정에의 참여로서 교직원 회의, 각종 협의회, 학년회, 교무분장에 의한 분과회의 등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자료를 제공한다.

9) 김창걸, 교육행정학신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2), p. 761.

(8) 지역사회와의 협조

학급교사는 학생들의 학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인사들과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학교는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성장·발전하는 것이다.¹⁰⁾

3. 담임교사의 자질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라는 말은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실재를 주도하고 그 질을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뜻한다. 즉, 교사의 자질은 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교원의 자질은 교직의 전문화에 맞추어 보다 높은 수준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것은 자기가 가르치는 교과목에 대하여 넓고 깊은 이해를 가지는 일, 아동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학습과 지도의 방법을 아는 일, 자기와 아동이 소속하고 있는 전체 사회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가지는 일,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을 통하여 젊음과 정열을 느끼며 희열감을 얻는 일, 도덕적 회의주의를 지양하고 전체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신봉하는 일, 인간 개조와 사회개혁에 대한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는 일이 중요하다.¹¹⁾

바람직한 학급담임교사의 자질을 갖춘 교사는 건전한 인생관을 가진 교사, 잠재 가능성을 발견하여 가꾸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교사, 뜨거운 정열과 사랑의 손을 가진 교사라야 하며 학급담임교사의 자질로서 사회에

10) 상계서, p.761.

11) 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1983), p. 305.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¹²⁾ 교과목에 어느 정도 정통해야 한다. 성실하고 건전하며 원만한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 인간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신념을 지녀야 한다. 협동심과 봉사 정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유능한 지도 능력과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신체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확고한 인생관과 투철한 국가관을 지녀야 한다.¹³⁾

남억우 등은 아동들이 좋아하는 교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연구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훌륭한 교사가 되려면 아동을 이해하고, 친절한 가운데 엄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잘 가르쳐 주어야 하고, 침착하며, 열심히 수업을 하고, 활발하고 유머를 잘 해 줄 것 등이다.¹⁴⁾ 김종철은 교원의 자질을 지식과 기술의 측면, 감정과 태도의 측면, 가치관의 측면 등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⁵⁾

1) 지적·기술적 측면

교사는 아동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아동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과영역과 학습지도 방법과 교수 능력 등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Ausubel은 교사 행동의 효율성에 관한 준거로서 세 가지를 들고 있다.¹⁶⁾ 그것은 교과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숙지 능력, 교재를 분명하게 조직

12) 박정주, "바람직한 교사상과 자질문제", 교육연구 1982, 11월호 (서울 : 교육연구사, 1982), pp. 44-45.

13) 최희선, 학교·학급경영 (서울 형설출판사, 1988), p. 334.

14) 남억우 외, 교사론 (서울 : 교육출판사, 1984), p. 104.

15) 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학사, 1982), p. 305.

하여 제시하는 능력, 즉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아동의 지적 성취도와 교재의 의미에 맞추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다. 이러한 준거는 교사가 아동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내용을 숙지하고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정하여 지식을 아동 수준에 맞추어 전달하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 감정과 태도의 측면

교사는 아동이 지적 발달을 꾀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아울러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여 전인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교사가 교육자다운 품격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할 때 아동의 태도는 달라지게 된다. 여기에는 아동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요청된다.

Spranger는 교육애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교육적인 사랑의 불빛이 적어도 내 가슴속에 타오를 때 나는 그때 비로소 교사가 되는 것이다. 한 교사가 한 개체인 아동을 상대로 교육할 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교육적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너-나의 관계가 사랑의 개체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초월한 영혼적 변화, 즉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서는 만족될 수 없는 관계이다.¹⁷⁾

이러한 순수한 교육애가 있어야만 교사와 아동간의 관계가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관계라는 것이다. 아동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가 아동을

16) 상계서, p. 311.

17) E. Spranger, 천부적인 교사 김재만 (譯) (서울 : 배영사, 1981), p. 141.

사랑하는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3) 가치관의 측면

교사는 무엇보다도 뚜렷한 신념과 사명감을 갖추어야 한다.¹⁸⁾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확고한 교육적 신념이 없을 때 훌륭한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가 교육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 내지 신념이 결여되었을 때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없으며, 아동에게 미치는 교육적인 영향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정열을 쏟고, 재미를 느끼게 될 때 본인을 위해서나 아동을 위해서 좋은 일이며,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훌륭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인격적 측면과 교수활동, 인간관계 등에서 다면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 바라는 교사의 자질은 교육행정가나 학부모가 바라는 교사의 자질과 다르고, 또한 교사 자신의 내적 요인에 의해서도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교사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잘 파악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담임조직의 형태 및 배정 방법

학급에 배치되는 교사는 학급의 교육활동과 학급 관리를 맡아 학급 전체를 경영하는 학급 경영자이다. 교사의 배치는 학급담임제와 교과전담제

18) 김종철, 전계서, p. 307.

그 외에도 협동교수제를 들 수 있다.

1) 교수-학습 조직

(1) 학급담임제

학급담임제는 한 교사가 한 학급의 전 교과 또는 대부분의 교과를 담당하여 학생 지도를 하는 조직으로 초등학교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 학급담임제는 통합 교육과정의 이론에 의해 발달한 것으로 그 장점은 다음과 같다.¹⁹⁾

- ① 교사가 학생을 잘 알 수 있다.
- ② 통합된 교육과정을 알 수 있다.
- ③ 프로그램을 신축성 있게 전개해 갈 수 있다.
- ④ 학생들과 더불어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⑤ 사회적 생활의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다.
- ⑥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 ⑦ 개인차가 적절하게 다루어 질 수 있다.
- ⑧ 부모와의 의사 유통이 더욱 촉진된다.
- ⑨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강조할 수 있다.

단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²⁰⁾

- ①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모든 면에 걸쳐 고루 다 잘 가르칠 수는 없다.

19) 홍용선, 신교육과정의 연구 (서울 : 연세대 출판부, 1986), pp. 173-177.

20) 상계서, p. 173-77.

② 교사와 특정한 학생간에 개인적인 충돌이 빚어지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③ 학급을 담임하여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는 자기 특기에 치우치는 지도를 하게 되며 자신이 없는 교과를 소홀하게 다루기 쉽다.

④ 학급 담임에 있어서는 교사의 능력의 차이가 클 때 미숙한 교사가 담임하는 아동들과 부모가 당하는 피해는 막을 길이 없다.

⑤ 한 교사에게 그 학급의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우게 된다.

최희선은²¹⁾ 학습지도 면과 생활지도 면으로 나누어 두드러진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학습지도 면에서 보면 학급담임제는 한 사람의 교사가 많은 교과를 담당하게 되므로 충분한 연구가 되지 못해서 각 교과의 학습이 철저하지 못하게 되기가 쉽다. 그러나 각 교과간의 연관이 쉽기 때문에 학습내용이 통합된다는 장점도 있다.

생활지도 면에서 보면 학급담임제는 교사가 동일한 학급의 학생을 지도하게 되므로 각 개인의 개성을 파악하기 쉽고 또한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걸쳐서 철저한 생활지도 내지 개성지도, 진로지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의 교사의 감화력이 커서 개성을 지각하는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특히 담임의 소양이 얇을 경우에 이 폐단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학급담임제는 초등학교에서 채택되고 있지만 교과담임제를 채택하는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담임을 지명, 배치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학에서도 지도교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학급담임제의 장점은 학습지도 보다는 생활지도 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²²⁾

21) 최희선, 학교 학급경영 (서울: 형설출판사, 1996), p. 180.

22) 정태범, 배종근, 교육행정·교육경영 (서울: 정민사, 1989), p. 445.

(2) 교과전담제

교과전담제란 한 교과 또는 상호간에 연관 있는 교과의 몇 개를 각 교사가 담당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조직이다. 오늘날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상술한 학급담임제(class teacher system or grade system)를 그리고 고학년에서는 교과전담제(departmental system)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²³⁾

교과전담제는 주로 중·고등학교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그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학습지도 면에서 보면 교과전담제는 각 교사가 전문학과를 지도하게 되므로 학습내용이 심도 있고 학습이 밀도 있게 진행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교과간의 연결이 불충분해져서 학습내용이 통합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생활지도 면에서는 교사의 지도가 특정한 시간 내에서만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지도도 교과의 학습이 주가 되기 때문에 생활지도는 불충분해진다는 결점이 있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의 교사와 접촉하게 되므로 자기의 개성을 자각하고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대체적으로 본다면 교과전담제의 장점은 생활지도 보다는 학습지도 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3) 김창걸, 교육행정학 (서울: 박문각, 1985), p. 237.

(3) 플라톤 스쿨(platoon School)

학급담임제의 장점과 교과전담제의 장점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로 이루어진 새로운 조직이 Platoon School이다. 이 조직은 학급을 성격에 따라 몇 개의 조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은 학교생활의 반을 자기의 학급에서 보내고 나머지는 전문적인 교사에게 수학, 과학, 미술, 체육, 음악 등을 배운다. 즉 한 집단이 기본적인 교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만나는 동안에 다른 집단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강당 체육관 또는 기타의 특수교실에서 만난다. 이 안은 미국에서 생겨나 현재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조직으로 교사는 학급담임과 교과담임의 이중적인 조직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는 현재 우리 나라의 일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체능전담제와 유사하다. 즉 주지교과는 학급담임교사가, 예체능교과는 교과담당교사가 맡아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장점으로는²⁴⁾ 담임교사가 개별학생,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이웃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충분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고, 학생들은 한 교사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귀속감을 가질 수 있으며 분과화된 체제에서 학급을 이동하더라도 자신의 소속 의식을 잃지 않으며,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교과간의 내적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기회를 갖고, 교사의 능력과 임무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즉 교사는 각자의 흥미와 능력에 따라 교과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또 학생들은 수업 방법과 인성 등이 다른 여러 교사와 사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24) 이병진, “초등 교사의 전문성과 교과 교육의 과제”, 초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초등 교원의 위상 정립, 제 1회 초등교육 세미나, 1992, pp. 177-184.

어떠한 영역을 전문화함으로써 좀 더 능력 있는 교사를 초등학교에 유인할 수 있게 되며, 한 교과에 특별한 흥미와 재능을 지닌 학생들은 학년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빨리 진급해 나갈 수 있고, 교과담당 교사들은 초등학교 전 기간에 걸쳐 장기적인 과제를 제공한다. 따라서 그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어린이를 발견하고 오랫동안 그들의 발달을 계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설 수 있다.

단점으로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교양 필수로 하고 어떤 과목을 교양 선택으로 해야 할지 이론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학년제 부분의 학년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이전 학년의 과제를 반복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급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며, 교과담당교사들은 각 학생들을 잘 알기 어렵다. 또한 학부모들은 학생의 발달 정도를 잘 알기 위해서 몇 명의 교사들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은 진급을 결정하는 평가를 준비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4) 팀 티칭(Team Teaching)

팀 티칭은 전통적인 학교 조직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Judson T. Shaplin에 의하면 팀 티칭은 1954년이래 미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학교조직이다.²⁵⁾ 팀 티칭은 우수교사의 혜택을 많은 학생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의 개인차를 존중하며, 학습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고안된 교수형태의 하나이다.

Shaplin은 팀 티칭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교사가 동일한 학생집단의

25) Judson T. Shaplin and Henry F. Olds, Jr.(eds), Team Teaching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4), 1; 정태범, 배종근, 교육행정, 교육경영 (서울: 정민사, 1989), p. 446에서 재인용.

수업의 전부 또는 의의 있는 어떤 부분을 위해서 협동적으로 일 할 책임을 지는 수업조직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팀 티칭은 수업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한다.²⁶⁾

팀 티칭의 특징으로는 교수에 있어서의 장학방법의 개선, 교사를 위한 비전문적 보조원의 활용, 그리고 교수에 있어서의 기계적인 보조물의 확충적 활용을 들고 있다. 팀 티칭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집단을 동일학년에서 학습영역별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Team leader는 교수-학습과정의 계획부터 평가, 행정적 조정에 이르기까지 전 책임을 진다. Team leader의 하루 일과의 1/3은 소속직원의 관찰 및 훈련, 계획,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와 평가, 그리고, 학부형과의 관계를 위한 목적에 활용한다. 그 외에 Team leader를 보좌하면서 주요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상급교사, 교사인턴, 조교, 사무조교 등으로 Team을 구성한다.²⁷⁾

팀 티칭의 장점은, 우수교사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또한 여러 교사의 전문적 능력을 조직적 협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Team leader의 지도능력, 시설, 교사간의 높은 협동성 그리고 행정적 지원의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이다.²⁸⁾

2) 학급담임교사의 배정 방식

학급 담임은 학급의 교과 교육을 포함하여 학급 전체의 경영활동을 전담하기 때문에 학급담임 배정은 학교 및 학급 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

26) 상계서, p. 447.

27) 이영덕, 교육의 과정 (서울: 배영사, 1984), p.304; 정태범, 배종근, p. 446에서
재인용.

28) 상계서, p. 447.

요한 일이다.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학급담임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장은 신중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학급 담임 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²⁹⁾

(1) 계속적인 담임제

이 방식은 한 교사가 1개 학년 학급을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담임하거나 몇 개년을 연속적으로 전담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적 담임제는 한 교사가 한 학급을 장기간 담임하게 되므로 아동은 물론 학부모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 학생에게 맞는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담임 교사의 교육에 대한 열성이나 가치관이 확고하지 못하거나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인격의 소유자라면 교사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학생은 장기간 그의 능력이나 개성을 발휘하지 못하며 교사의 결점이 학생에게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러한 계속적 담임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학년고정식 담임제

이 방식은 교사마다 담당학년을 미리 고정해 놓고 그 교사로 하여금 매년 동일한 학년의 학급을 담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학년고정식 담임

29) 조성일, 김영출, 교육행정과 학교·학급경영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재동문화사, 1997), pp. 317-320.

제는 교사를 크게 세 가지 학년 담임으로 나누어 저학년 담임, 중학년 담임, 고학년 담임으로 고정 배치할 수도 있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고정 배치할 수도 있다.

이 방법에 있어서는 각 학급담임교사는 해마다 같은 학년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그 학년 아동이나 학생들의 성장 발달상의 공통적인 심리적 성향이나 특징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 학년의 교육과정이나 지도방법에 가장 정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학급담임교사의 효율적인 학급경영과 학습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 된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매년 같은 학년을 되풀이하여 담임한다는 교사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교육내용이나 학습자들의 지도면에서 대부분이 해마다 되풀이해야 하므로 자칫하면 교재연구나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의욕이 약화될 가능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생각된다.

(3) 일정 연한 교체식 담임제

이 방법은 한 사람의 학급담임교사가 동일한 학급을 2년 또는 3년간 계속적으로 담임하다가 교체되는 방법이다.³⁰⁾ 이 방식은 계속적인 담임제의 장점을 살리고 그 단점을 시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요즈음 여러 연구학교에서 시범실행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며 바람직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정기한이 사전에 결정되고 교사가 선임되는 제도이므로 최종 담당 연도에 가서는 담당학급을 위한 교사의 열의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0) 상계서, p. 317-320.

(4) 자유선택식 담임제

이 방법은 학교의 교직원 조직이나 실정에 따라 특정한 원칙이 없이 학급담임교사를 선임하는 방식이다.³¹⁾ 이 방법은 대개의 경우 아무 때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학급담임을 교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교사나 학급아동은 물론이고 학부모까지도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될 우려가 따르게 된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학급담임교사를 교체한 이유가 잘 이해되지 못할 때는 오해나 임명권자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학교 분위기가 흐리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담임기간이 대개의 경우 1년을 넘지 못함으로써 학급담임교사의 입장에서는 학급아동이나 학부모 및 가정환경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학급아동에 대한 계획적인 지도를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따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학교 경영상 피치 못할 교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비교적 많이 적용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다.

(5) 희망선임식 담임제

학급담임의 배정을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교사들의 희망을 듣고 난 후 선임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은 논리적으로 보면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교사 각자의 희망대로 선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이 방법에 의하면 교사들의 희망대로 선임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에 대한 불

31) 상계서, p. 317-320.

평과 불신이 생겨나게 되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 전 교사 모두가 각자 희망한대로 학급담임에 선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사의 사기는 물론이고 보다 능률적인 학급경영과 나아가서는 교육의 성과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학급담임 배정 제도는 각각의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아동의 지도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는 학년고정식 담임제도, 계속적인 담임제도, 일정연한 변경식 담임제도라고 하겠다. 따라서 교사의 세분화된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학년고정식 담임제도의 도입이나 학년고정식과 일정연한 변경식 담임제도를 병행하는 담임배정제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선행연구의 고찰

초등학교에서 학년전담제에 관한 논문은 아직 많이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담임연임제와 더불어 학년전담제에 대한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박승열³²⁾은 교사의 희망 학년이 일부에 치중되어 전 교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일정기간 학년 고정전담제를 주장하고, 그 기간은 2-3년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다. 같은 학년을 2-3년간 고정 담임하면 교사의 수업

32) 박승열, "국민학교 경영조직에서 학급편제 및 담임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pp. 42-45.

준비를 위한 시간 부족을 줄일 수 있고, 조직 균형 배치 등 약간의 문제성은 있으나 교사의 인사 배치 제도면 개선으로 학습을 용이하게 지도할 수 있고 교재에 정통하여 학습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전문화 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최영자³³⁾는 그의 연구에서 초등학교에서 담임제는 일정 연한 학년 고정식 담임제가 바람직하고 특정 학년이 특성과 교사의 희망 학년에 대한 고려, 교사의 잡무 부담을 없애고 충분한 교재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기열³⁴⁾은 학위논문에서 초등학교에서 학년전임제를 실시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현행 학급담임제의 문제점으로 교재연구의 부담, 자료의 빈곤, 연수시간의 부족, 전문성의 결여를 지적하였다. 학년전임교사제의 장점으로서는 자료의 보관 및 활용으로 교사에 의하여 수집 또는 제작된 자료가 해마다 누적되어 아동 수업에 투입됨으로써 자료구입에 들어가는 학교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고 아동들이 자료구입에 드는 사교육비의 절감까지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해마다 되풀이되는 학년배정에 대한 교사 상호간의 불만도 경감되어 직장내의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학년전임제의 실시조건으로 고학년 교과전담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3) 최영자, “국민학교 학급담임 선정에 관한 기초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pp.47-50.

34) 김기열, “초등학교 학년전임교사제 실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 46-51.

이강균³⁵⁾은 담임학년 선호도는 2학년, 3학년, 1학년 순 이며 저학년의 희망 이유로 주당 수업 시간차이라고 54.3%가 응답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급담임은 수업시간 과다로 인한 근무 부담이 저학년 학급담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담임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교과전담제의 확대 실시와 일정 연한 연임식 담임제를 들고 있다.

곽병선, 함세정, 김홍원은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학습 자료를 동원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 실험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초등학교의 교수·학습 자료 확보 실태는 매우 미약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재, 교구, 자료의 빈곤으로 교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⁶⁾

이성진³⁷⁾은 교육 방법의 효율화는 교사의 수업 행동이 그 성패의 관건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육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습 지도에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숙, 박인종은 한국 교원의 주 평균 수업 시간은 선진국에 비하여 많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교원의 역할이 수업 이외에도 생활지도, 사무처리, 행사준비, 각종 회의 등으로 다양하다고 할 때 한국 교원의 근무 조건은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전문직 직무 영역 이외의

35) 이강균, “학급담임 배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pp. 48-53.

36) 곽병선, 초등교육 내실화 방안 탐색 기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2), pp. 58-60.

37) 이성진, “교육방법의 효율화,” 초·중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세미나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3), pp. 89-90.

근무 부담을 우선적으로 경감시키는 방향에서 교원 근무 부담의 적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³⁸⁾

정수원³⁹⁾은 그의 연구에서 통합학년전담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학년순환담임제는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가로막는 담임제여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통합학년전담제란 통합교과로 지도하는 저학년 담임은 1-2학년만 순환담임 또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교과전담제가 가능한 3-6학년 담임들은 3-6학년의 4개 학년만 순환담임 또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복합교과전담제가 실시된다면 초등교원들의 지도의무교과가 3-4개 교과로 크게 축소된다. 따라서 중등이 한 교과를 3개 학년에 걸쳐 순환지도하면서 담임을 맡듯이 초등도 4개 학년에 걸쳐 순환 담임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이다. 융통성 있는 학년전담의 효과는 반드시 복합교과전담제의 수용을 전제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제주도교육청 지정 학년전담제 시범학교인 제주북초등학교의 시범운영 보고서에 의하면 담임 경력 중심으로 학년전담제를 운영하였을 때 교육과정 운영상의 자기 연수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해당학년 경험을 축적하게 되어 교과,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었으며, 아동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능력이 향상되었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38) 박영숙, 박인종, 초·중등 교육 국제 비교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7). pp. 4-5.

39) 정수원, “초등교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학교발전연구회, 간행물 제 2호, 1997, pp. 119-122.

및 투입으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었고, 다양한 평가 도구의 개발 활용 면에서도 효율적이었으며, 개인별 자료를 다량 제작 및 확보하게 되었다. 단점으로는 교재 연구나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 의욕이 약화되는 경향이 더러 있었다고 지적되었다.⁴⁰⁾

대구대산초등학교 시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년연임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학습지도의 효과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⁴¹⁾

박복수⁴²⁾는 학위논문에서 학년전담제 실시의 선행조건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과전담교사 수를 늘려 전학년 공히 1인당 주당 수업 시간 수를 25시간 정도로 배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매년 같은 학년을 담임하는 학년전담제를 정착시켜 공·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구입 및 수집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료 보관실 설치와 적재 적소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경영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고찰된 논의들을 보면 박복수 외에는 학년전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그 의미들은 모두 학년전담제와 유사한 것이다. 박승열의 일정 연한 학년 고정식 담임제나 이강군의 일정 연한 연임식 담임제, 또 최영자의 일정 연한 학년 고정식 담임제가 모두 연구에서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은 사실은 이미 학년전담제의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

40) 제주북초등학교 시범운영보고서, “학급편성 및 학년전담제 운영을 통한 교수-학습력 신장” (1977), PP. 42-45.

41) 대구대산초등학교 학급편성 및 담임배정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학생의 욕구·소질에 따른 학급편성 및 담임배정 ” (1977), PP. 52-53.

42) 박복수, “초등학교 학년 전담제 운영을 위한 선행조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다.

또한 초등학교의 각종 학습 자료의 빈곤은 많은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의 교사들도 인정하고 있다. 매년 같은 학년을 전담함으로써 자료의 축적이 용이해진다는 김기열, 박복수의 연구 결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주로 학급담임의 선정과 배정, 교사의 담임선호도 등에 집중된 선행 연구물은 많았으나 점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년전담제가 확대 실시되면 초등교사의 전문성과 초등교육의 효과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학년전담제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하고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선행조건과 향후 학년전담제 실시에 따른 예상 효과를 탐색하여 학년전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Ⅲ. 研究의 方法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고찰은 학급경영과 관련된 참고도서, 학술지 등을 통하여 학년전담제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탐색하고, 학년전담제에 관련된 보고서, 논문, 신문, 잡지, 외국의 사례 등을 수집, 분석하여 본 연구에 이용하였으며, 조사연구는 학년전담제의 운영에 대한 교원들과 학부모의 인식을 토대로 실시하였다.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500명과 학부모 360명을 무선 표집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표집 대상자로부터 회수된 질문지는 교원 426부(회수율 85.2%), 학부모 259부(회수율 71.9%)로 모두 685부이며 회수율은 79.7%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부를 제외한 682부를 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기초배경 변인별 분포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배경 변인별 분포

구분		성별		경력별			2년 이상 동일 학년 연임 경험		계
		남	여	10년 이하	11- 21년	21년 이상	있음	없음	
교원	응답자수 (명)	130	293	171	152	99	315	107	423
	비율(%)	30.7	69.3	40.5	36.0	23.5	74.6	25.4	100
학부모	응답자수 (명)	95	164	259
	비율(%)	36.7	63.3	100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학년전담교사제에 대한 선행 연구물인 정학미⁴³⁾와 박복수⁴⁴⁾가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로 하고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각 설문지의 내용구성은 학년전담제 운영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선행조건 탐색, 향후 학년전담제 실시의 효과에 대한 3개 영역에 모두 2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43) 정학미, “초등학교 학년전담교사제의 시행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 82-84.

44) 박복수, 전게서, pp. 66-72.

<표 2> 설문지 내용 구성 및 문항내용

영역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1. 학년전담제 운영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인식	학년전담제 운영의 필요성	1	1
	교과활동과의 관련	2, 4	2
	생활지도와의 관련	3	1
	특별활동과의 관련	5	1
	업무경감의 효과	7	1
	학년배정의 애로점 경감	11,19	2
	연구의 태만에 대한 인식	13	1
	학년전담제 운영 방법	23	1
2. 학년전담제 실시를 위한 선행조건	교과전담교사제 확대 실시	17	1
	수업 시수 경감	20	1
	교과목 축소 조정	21	1
	초과수업 시수에 대한 경제적 보상	18	1
	정책 과제 및 결정	22,24	2
3. 학년전담제 실시의 효과성	수업기술의 향상	15	1
	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 증진	6,16	2
	자료의 활용	9	1
	자료의 보관	8	1
	공·사교육비 절감	10	1
	교재 연구의 시간 및 노력 절감	12	1
	자기 연수의 충실	14	1
총 문항수			24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년전담제 운영실태에 관한 인식과 선행 조건 및 향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수된 설문지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사의 각 배경 변인별로 백분율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고 집단간의 차이는 $P < .05$, $P < .01$, $P < .001$ 수준에서 유의도를 검증하였으며 C계수(유관계수 : contingency coefficient)도 확인하였다.

IV. 結果 分析 및 解釋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통하여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선행조건, 학년전담제 실시의 효과에 대하여 영역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검증·해석하였다.

1. 학년전담제 운영에 대한 인식

(1) 학년전담제 운영의 필요성

<표 3> 학년전담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N(%)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32 (24.6)	47 (36.1)	27 (20.8)	17 (13.1)	7 (5.4)	130 (30.7)	x ² = 9.694 * df=4 p=.046 c=0.150
		여	78 (26.6)	136 (46.4)	53 (18.1)	18 (6.2)	8 (2.7)		
	경력 별	10년 이하	38 (22.2)	76 (44.4)	34 (19.9)	16 (9.4)	7 (4.1)	171 (40.5)	x ² = 6.442 df=8 p=.598 c=0.123
		11- 20년	42 (27.6)	60 (39.5)	32 (21.1)	14 (9.2)	4 (2.6)	152 (36.0)	
		21년 이상	30 (30.3)	46 (46.5)	14 (14.1)	5 (5.1)	4 (4.0)	99 (23.5)	
	연임 경험	있음	86 (27.3)	130 (41.3)	57 (18.1)	28 (8.9)	14 (4.4)	315 (74.6)	x ² = 5.507 df=4 p=.239 c=0.114
없음		24 (22.4)	52 (48.6)	23 (21.5)	7 (6.5)	1 (1.0)	107 (25.4)		
전체		110 (26.1)	182 (43.1)	80 (18.9)	35 (8.3)	15 (3.6)	422 (100)		
학부 모	성별	남	10 (10.5)	40 (42.1)	27 (28.4)	13 (13.7)	5 (5.3)	95 (36.7)	x ² = 5.728 df=4 p=.220 c=0.147
		여	17 (10.4)	50 (30.5)	48 (29.3)	40 (24.4)	9 (5.5)	164 (63.3)	
	전체		27 (10.4)	90 (34.7)	75 (29.0)	53 (20.5)	14 (5.4)	259 (100)	

* p<.05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매년 학년 담임이 바뀔에 따라 대상 학년의 교과 지식이나 학생지도에 애로점이 많다. 이에 따라 대상 지도 학년을 계속해서 지도하는 학년전담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 학년전담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경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한 교사의 성별, 경력별, 2년 이상 동일학년 연임경험별 및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학년전담제 실시의 필요성은 교원의 경우 경력별, 연임경험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성별로는 여교원이(73%) 남교원(60.7%)보다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의 경우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고 45.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교원보다 학년전담제의 필요성을 훨씬 덜 느끼고 있다.

연임경험에 의한 차이점은 거의 없었으나 경력별로는 고경력 교원이(21년 이상 76.8%, 11-21년 67.1%) 10년 이하의 교원보다(66.6%)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는데 이것은 10년 이하의 교원들은 다양한 학년을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은 것으로 해석되고 오랫동안 다양한 학년을 담임해 본 고경력 교사들은 그 동안의 교육경험에 비추어 보아 학년을 순환하여 담임하는 것보다는 특정 학년만을 담임하는 학년전담제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학년전담제 운영의 교과활동 관련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당해 학년의 10개 교과 지도 내용을 잘 알 수가 없다. 그에 따라 당해 학년의 교재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학년전담제를 운영하면 교과활동 지도에 있어서 수업 기술이 향상되어 개별화와 수준별 지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조사에서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매년 반복하여 교과를 지도하기 때문에 해당 학년의 교과 교육에 더욱 정통할 수 있다”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표 4>와 같다.

<표 4> 학년전담제 운영의 교과활동 관련에 따른 인식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44 (33.9)	61 (46.9)	20 (15.4)	3 (2.3)	2 (1.5)	130 (30.7)	x ² = 15.258 * df=4 p=.004 c=0.187	
		여	126 (43.0)	139 (47.4)	14 (4.8)	11 (3.8)	3 (1.0)	293 (69.3)		
	경력 별	10년 이하	65 (38.0)	82 (47.9)	14 (8.2)	8 (4.7)	2 (1.2)	171 (40.5)	x ² = 12.857 df=8 p=.117 c=0.172	
		11- 20년	61 (40.1)	79 (51.9)	8 (5.3)	4 (2.6)	0 (0.0)	152 (36.0)		
		21년 이상	44 (44.5)	38 (38.4)	12 (12.1)	2 (2.0)	3 (3.0)	99 (23.5)		
		연임 경험	있음	129 (40.9)	147 (46.7)	22 (7.0)	12 (3.8)	5 (1.6)		315 (74.6)
	없음	41 (38.3)	52 (48.6)	12 (11.2)	2 (1.9)	0 (0.0)	107 (25.4)			
	전체		170 (40.3)	199 (47.1)	34 (8.1)	14 (3.3)	5 (1.2)	422 (100)		
	학부 모	성별	남	12 (12.6)	51 (53.7)	20 (21.1)	10 (10.5)	2 (2.1)	95 (36.7)	x ² = 2.272 df=4 p=.686 c=0.093
			여	19 (11.6)	84 (51.2)	29 (17.7)	28 (17.1)	4 (2.4)	164 (63.3)	
전체		31 (12.0)	135 (52.1)	49 (18.9)	38 (14.7)	6 (2.3)	259 (100)			

* p<.05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인 반응은 교사와 학부모 집단 모두 학년전담제 운영의 교과 활동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다. 87.5%의 교원이 매우 또는 그렇다고 반응하였고 64.1%의 학부모가 같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집단 모두 학년전담제 실시가 교과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들 하위 변인별 유의 수준을 검증한 결과 교원의 성별에서만 p<.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 교사는 79.8%가 학년전담제의 실시로 해당 학년의 교과 교육에 더욱 정통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 교사는 90.4%가 응답하여 남자 교사보다 여자 교사가 학년전담제 실시로 인한 교과 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높게 하고 있다.

<표 5> 학년전담제 운영의 수업 기술 향상에 대한 인식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47 (36.2)	52 (40.0)	19 (14.6)	10 (7.7)	2 (1.5)	130 (30.7)	x ² = 11.254 * df=4 p=.024 c=0.161
		여	125 (42.6)	135 (46.1)	19 (6.5)	12 (4.1)	2 (0.7)	293 (69.3)	
	경력별	10년 이하	65 (38.0)	74 (43.3)	18 (10.5)	12 (7.0)	2 (1.2)	171 (40.5)	x ² = 8.673 df=8 p=.371 c=0.142
		11-20년	64 (42.1)	73 (48.0)	9 (5.9)	6 (4.0)	0 (0.0)	152 (36.0)	
		21년 이상	43 (43.4)	39 (39.4)	11 (11.1)	4 (4.1)	2 (2.0)	99 (23.5)	
		연임 경험	있음	129 (40.9)	132 (41.9)	35 (11.1)	15 (4.8)	4 (1.3)	
	없음	43 (40.2)	54 (50.5)	3 (2.8)	7 (6.5)	0 (0.0)	107 (25.4)		
전체		172 (40.8)	186 (44.1)	38 (9.0)	22 (5.2)	4 (0.9)	422 (100)		
학부모	성별	남	10 (10.5)	54 (56.8)	22 (23.2)	8 (8.4)	1 (1.1)	95 (36.7)	x ² = 4.177 df=4 p=.383 c=0.126
		여	18 (11.0)	73 (44.5)	49 (29.9)	22 (13.4)	2 (1.2)	164 (63.3)	
	전체		28 (10.8)	127 (49.0)	71 (27.4)	30 (11.6)	3 (1.2)	259 (100)	

* p<.05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교과 활동면에서 수업기술이 향상되고 교육과정 운영이 한층 쉬워질 것이다”는 설문에 대한 인식은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수업기술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측면이 교원의 경우 84.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학부모의 경우는 59.8%가 매우 또는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고 27.4%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경력별, 연임경험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교원의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남자 교원(76.2%)보다 여자 교원(88.7%)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교과 관련 활동면에서는 여자 교원의 기대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경력별 반응에서는 고경력 교사가(90.1%) 10년 이하의 교사(81.3%)보다 학년전담제 실시가 주는 수업기술의 향상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여러 학년을 순환하여 담임해본 결과 한 학년만을 전담하여 가르치는 것이 보다 더 수업기술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경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향은 학년전담제를 운영하면 교과활동 면에서 교육과정 내용을 잘 알게 됨으로 교사들의 수업 기술이 향상되어 아동의 학습 지도에 개별화를 기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성취감이 높아져 자율 학습의 태도가 형성되며, 또한 교사들의 학급 경영 능력이 향상됨을 시사한다.

(3) 학년전담제 운영의 생활지도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매년 담임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아동의 생활 지도에 있어서도 아동의 특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지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아동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학년전담제 운영의 생활지도 면에서는 아동의 생활지도가 용이해지고 교사와 아동의 공동 관심사로 친밀감이 증대되어 아동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본 조사에서 학년전담제 운영의 생활지도에 대한 기대 인식은 <표 6>과 같다.

<표 6> 학년전담제 운영의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45 (34.6)	57 (43.9)	18 (13.8)	8 (6.2)	2 (1.5)	130 (30.7)	x ² = 9.592 * df=4 p=.048 c=0.149	
		여	105 (35.8)	156 (53.2)	21 (7.2)	7 (2.4)	4 (1.4)	293 (69.3)		
	경력별	10년 이하	50 (29.2)	93 (54.4)	15 (8.8)	10 (5.8)	3 (1.8)	171 (40.5)	x ² = 22.094 * * df=8 p=.005 c=0.223	
		11-20년	50 (32.9)	84 (55.3)	16 (10.5)	2 (1.3)	0 (0.0)	152 (36.0)		
		21년 이상	49 (49.5)	36 (36.4)	8 (8.1)	3 (3.0)	3 (3.0)	99 (23.5)		
		연임 경험	있음	108 (34.3)	156 (49.5)	31 (9.9)	14 (4.4)	6 (1.9)		315 (74.6)
	없음	41 (38.3)	57 (53.3)	8 (7.5)	1 (0.9)	0 (0.0)	107 (25.4)			
	전체		149 (35.3)	213 (50.5)	39 (9.2)	15 (3.6)	6 (1.4)	422 (100)		
	학부모	성별	남	13 (13.7)	59 (62.1)	15 (15.8)	6 (6.3)	2 (2.1)	95 (36.7)	x ² = 5.091 df=4 p=.278 c=0.139
			여	22 (13.4)	83 (50.6)	38 (23.2)	19 (11.6)	2 (1.2)	164 (63.3)	
전체		35 (13.5)	142 (54.8)	53 (20.5)	25 (9.7)	4 (1.5)	259 (100)			

* p<.05 * * p<.01

<표 6>에 의하면 교원 85.9%와 학부모 68.3%가 학년전담제 실시로 인한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 변인별로는 성별에서 p<.05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경력별로는 p<.01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원의 성별에서 여교원(89.0%)이 남교원(78.5%)보다 생활지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더 높게 한 것은 매년 담임 학년이 바뀔 때마다 남교원 보다 여교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력별 인식에서는 11-20년 사이(88.2%), 21년 이상(85.9%), 10년 이하(83.6%)의 순으로 학년전담제 운영으로 생활지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7> 학년전담제 운영의 특별활동에 대한 인식 N(%)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30 (23.1)	54 (41.5)	29 (22.3)	14 (10.8)	3 (2.3)	130 (30.7)	x ² = 2.491 df=4 p=.646 c=0.077
		여	70 (23.9)	115 (39.2)	81 (27.7)	23 (7.8)	4 (1.4)	293 (69.3)	
	경력 별	10년 이하	33 (19.3)	65 (38.0)	50 (29.3)	19 (11.1)	4 (2.3)	171 (40.5)	x ² = 6.835 df=8 p=.555 c=0.126
		11- 20년	40 (26.3)	63 (41.5)	37 (24.3)	11 (7.2)	1 (0.7)	152 (36.0)	
		21년 이상	26 (26.3)	41 (41.4)	23 (23.2)	7 (7.1)	2 (2.0)	99 (23.5)	
	연임 경험	있음	77 (24.5)	122 (38.7)	82 (26.0)	28 (8.9)	6 (1.9)	315 (74.6)	x ² = 1.526 df=4 p=.822 c=0.060
		없음	22 (20.6)	47 (43.9)	28 (26.2)	9 (8.4)	1 (0.9)	107 (25.4)	
전체		99 (23.5)	169 (40.0)	110 (26.1)	37 (8.8)	7 (1.6)	422 (100)		
학부 모	성별	남	15 (15.8)	52 (54.7)	22 (23.2)	5 (5.3)	1 (1.0)	95 (36.7)	x ² = 3.090 df=4 p=.543 c=0.109
		여	19 (11.6)	83 (50.6)	43 (26.2)	17 (10.4)	2 (1.2)	164 (63.3)	
	전체		34 (13.1)	135 (52.1)	65 (25.1)	22 (8.5)	3 (1.2)	259 (100)	

(4) 학년전담제 운영의 특별활동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매년 담임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

의 특기 및 소질을 잘 알 수가 없다. 그에 따라 특기 신장 지도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학년전담제를 운영하면 특별활동 지도에 있어서도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지도에 도움이 된다. 본 조사에서 학년전담제 운영의 특별활동에 대한 기대 인식 경향은 각 변인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전담제 운영의 특별활동에 대한 인식 경향을 전체적으로 보면 교원이 63.6%, 학부모가 65.2%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임 경험의 경우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경력별 반응에서 10년 이하의 교원이 특별활동 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경력 교원보다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학년전담제 운영이 특별활동에 있어서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지도와 창의성 계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학년전담제 운영의 학교(급) 업무경감에 대한 인식 N(%)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27 (20.8)	49 (37.7)	29 (22.3)	18 (13.8)	7 (5.4)	130 (30.7)	x ² = 3.680 df=4 p=.451 c=0.093
		여	63 (21.5)	126 (43.0)	68 (23.2)	26 (8.9)	10 (3.4)	293 (69.3)	
	경력별	10년 이하	26 (15.2)	71 (41.5)	40 (23.4)	21 (12.3)	13 (7.6)	171 (40.5)	x ² = 22.890 * * df=8 p=.004 c=0.227
		11-20년	34 (22.4)	72 (47.4)	34 (22.4)	11 (7.2)	1 (0.6)	152 (36.0)	
		21년 이상	30 (30.3)	31 (31.3)	23 (23.3)	12 (12.1)	3 (3.0)	99 (23.5)	
	연임경험	있음	73 (23.2)	126 (40.0)	74 (23.5)	31 (9.8)	11 (3.5)	315 (74.6)	x ² = 3.880 df=4 p=.423 c=0.095
없음		17 (15.9)	48 (44.9)	23 (21.5)	13 (12.1)	6 (5.6)	107 (25.4)		
전체		90 (21.3)	174 (41.2)	97 (23.0)	44 (10.5)	17 (4.0)	422 (100)		
학부모	성별	남	9 (9.5)	55 (57.9)	23 (24.2)	7 (7.4)	1 (1.0)	95 (36.7)	x ² = 0.656 df=4 p=.957 c=0.050
		여	19 (11.6)	95 (57.9)	36 (22.0)	11 (6.7)	3 (1.8)	164 (63.3)	
	전체		28 (10.8)	150 (57.9)	59 (22.8)	18 (7.0)	4 (1.5)	259 (100)	

* * p<.01

5) 학년전담제 운영의 학교(급) 업무경감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매년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당해 학년에 대한 교재연구나 학습자료 제작으로 교사들의 학교(급)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에 따라 교사들은 아동의 학습지도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 학년전담제 운영의 학교(급) 업무 경감에 대한 인식 경향은 <표8>과 같다.

<표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전담제 운영의 업무 경감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교원(62.7%)과 학부모(68.7%)가 비슷한 수치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위 변인별로는 경력별에서만 $p<.01$ 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업무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절감될 것이다”는 설문에 11-20년(69.8%), 21년 이상(61.6%), 10년 이하(56.7%)의 순으로 응답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11-20년 경력의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 연령대이며 이러한 경향은 현행 담임제에 교원들이 업무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과중 되고 있어 학년전담제를 확대 운영할 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음을 시사한다.

(6) 학년 배정의 애로점 경감

<표 9> 학년 배정의 애로점 경감에 대한 인식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43 (33.1)	46 (35.4)	25 (19.2)	13 (10.0)	3 (2.3)	130 (30.7)	x ² = 4.202 df=4 p=.379 c=0.099	
		여	100 (34.1)	111 (37.9)	57 (19.5)	24 (8.2)	1 (0.3)	293 (69.3)		
	경력 별	10년 이하	51 (29.8)	59 (34.5)	40 (23.4)	18 (10.5)	3 (1.8)	171 (40.5)	x ² = 13.868 df=8 p=.085 c=0.178	
		11- 20년	50 (32.9)	68 (44.7)	23 (15.1)	10 (6.6)	1 (0.7)	152 (36.0)		
		21년 이상	42 (42.4)	29 (29.3)	19 (19.2)	9 (9.1)	0 (0.0)	99 (23.5)		
		연임 경험	있음	111 (35.2)	115 (36.5)	59 (18.7)	27 (8.6)	3 (1.0)		315 (74.6)
	없음	32 (29.9)	41 (38.3)	23 (21.5)	10 (9.4)	1 (0.9)	107 (25.4)			
	전체		143 (33.9)	156 (37.0)	82 (19.4)	37 (8.8)	4 (0.9)	422 (100)		
	학부 모	성별	남	7 (7.4)	43 (45.3)	30 (31.6)	14 (14.7)	1 (1.0)	95 (36.7)	x ² = 1.342 df=4 p=.854 c=0.072
			여	8 (4.9)	78 (47.5)	57 (34.8)	20 (12.2)	1 (0.6)	164 (63.3)	
전체		15 (5.8)	121 (46.7)	87 (33.6)	34 (13.1)	2 (0.8)	259 (100)			

“전 학년 주당 수업 시간 수를 비슷하게 하여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학교 경영자의 학년 배정에 대한 애로 사항을 경감 시켜 줄 것이다.” 는 <표 9>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70.9%의 교원과 52.5%의 학부모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각 하위 변인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기초 학년 담임 배정시 저학년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많아 이에 따른 학년 담임 배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예체능 교과전담 교사 수를 더욱 늘려 전학년 주당 수업 시간 수를 비슷하게 한다면 대체적으로 전 학년 고르게 학급 담임을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담임 배정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0> 학년 배정에 따른 교사 상호간의 불만 해소에 대한 인식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28 (21.5)	33 (25.4)	42 (32.3)	19 (14.6)	8 (6.2)	130 (30.7)	x ² = 4.702 df=4 p=.319 c=0.105	
		여	46 (15.7)	92 (31.4)	96 (32.8)	49 (16.7)	10 (3.4)	293 (69.3)		
	경력별	10년 이하	25 (14.6)	46 (26.9)	55 (32.2)	37 (21.6)	8 (4.7)	171 (40.5)	x ² = 9.210 df=8 p=.325 c=0.146	
		11-20년	30 (19.7)	49 (32.2)	46 (30.3)	21 (13.8)	6 (4.0)	152 (36.0)		
		21년 이상	19 (19.2)	29 (29.3)	37 (37.4)	10 (10.1)	4 (4.0)	99 (23.5)		
		연임경험	있음	52 (16.5)	100 (31.7)	101 (32.1)	50 (15.9)	12 (3.8)		315 (74.6)
	없음	22 (20.6)	24 (22.4)	37 (34.6)	18 (16.8)	6 (5.6)	107 (25.4)			
	전체		74 (17.5)	124 (29.4)	138 (32.7)	68 (16.1)	18 (4.3)	422 (100)		
	학부모	성별	남	6 (6.3)	47 (49.5)	26 (27.4)	11 (11.6)	5 (5.2)	95 (36.7)	x ² = 10.634 * df=4 p=.031 c=0.199
			여	7 (4.3)	52 (31.7)	67 (40.9)	31 (18.9)	7 (4.2)	164 (63.3)	
전체		13 (5.0)	99 (38.2)	93 (35.9)	42 (16.2)	12 (4.7)	259 (100)			

* p<.05

학년 배정의 애로점 경감에 대한 또 하나의 설문으로 “학년전담제 실시는 담임 배정을 둘러싼 교사 상호간의 갈등과 불만 등을 줄어뜨리게 할 것이다”는 항목에 대한 본 조사 결과는 <표 10>과 같다.

전체적인 결과는 교원 47.1%와 학부모 43.2%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반응을 보였고 교원 32.6%와 학부모 35.9%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이 항목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을 크게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과전담제가 확대 실시되어 전 학년의 수업 시수가 같게 된다 하더라도 학년에 따른 업무 부담이나 교재 연구 등에 따르는 노력이 저학년에 비하여 고학년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원이 저학년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년을 배정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교 경영자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교사 상호간에는 불신과 갈등이 싹틀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항목이다. 그러므로 학년전담제는 담임 배정의 갈등과 불만을 줄어뜨리게 하는 요인에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교원의 각 변인별 유의점은 없으나 학부모의 성별에서 $p < .05$ 의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남자 학부모의 55.8%가 학년전담제 실시로 학년 배정에 따른 교사 상호간의 갈등과 불만 등을 줄어뜨리게 할 것이라고 인식한 반면 여자 학부모는 36%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같은 학부모라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인식이 많이 다를 수 있다.

<표 11> 학년전담제 운영에 따른 연구의 태만에 대한 인식 N(%)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13 (10.0)	37 (28.5)	44 (33.8)	27 (20.8)	9 (6.9)	130 (30.7)	x ² = 5.140 df=4 p=.273 c=0.110	
		여	37 (12.6)	98 (33.5)	69 (23.6)	64 (21.8)	25 (8.5)	293 (69.3)		
	경력 별	10년 이하	19 (11.1)	59 (34.5)	46 (26.9)	38 (22.2)	9 (5.3)	171 (40.5)	x ² = 5.859 df=8 p=.663 c=0.117	
		11- 20년	16 (10.5)	49 (32.2)	40 (26.3)	34 (22.4)	13 (8.6)	152 (36.0)		
		21년 이상	14 (14.1)	27 (27.3)	27 (27.3)	19 (19.2)	12 (12.1)	99 (23.5)		
	연임 경험	있음	39 (12.4)	98 (31.1)	82 (26.0)	74 (23.5)	22 (7.0)	315 (74.6)	x ² = 5.108 df=4 p=.276 c=0.109	
		없음	10 (9.4)	37 (34.6)	31 (28.9)	17 (15.9)	12 (11.2)	107 (25.4)		
	전체		49 (11.6)	135 (32.0)	113 (26.8)	91 (21.5)	34 (8.1)	422 (100)		
	학부 모	성별	남	18 (18.9)	38 (40.0)	26 (27.4)	12 (12.6)	1 (1.1)	95 (36.7)	x ² = 4.251 df=4 p=.373 c=0.127
			여	29 (17.7)	77 (47.0)	29 (17.7)	25 (15.2)	4 (2.4)	164 (63.3)	
전체		47 (18.2)	115 (44.4)	55 (21.2)	37 (14.3)	5 (1.9)	259 (100)			

(6) 학년전담제 운영에 따른 교사의 연구 태도

<표11>에 의하면 “학년전담제의 실시는 같은 학년을 계속 담임하게 되므로 교사의 교재 연구나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를 태만히 할 우려가 있다”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분석 결과 각 변인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원의 43.7%와 학부모의 62.5%가 교사의 교재 연구나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를 태만히 할 우려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교원의 경우만 본다면 보통이라는 반응과(26.7%) 그렇지 않다(21.5%)와 전혀 그렇지 않다(8.0%)는 반응이 56.2%로 보통의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년전담제가 교사의 교재 연구나 지도 방법을 태만히 할 우려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인식은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2> 학년전담제 운영 방법에 대한 인식 N(%)

구 분		2년이 적정하다	3-4년이 적정하다	가능하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	당해 학교 에 근무하 는 동안이 좋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54 (41.5)	54 (41.5)	15 (11.6)	7 (5.4)	x ² = 5.279 df=3 p=.152 c=0.111		
		여	119 (40.6)	100 (34.1)	40 (13.7)	34 (11.5)		293 (69.3)	
	경력 별	10년 이하	89 (52.1)	58 (33.9)	13 (7.6)	11 (6.4)	171 (40.5)	x ² = 32.837 * * * df=6 p=.001 c=0.269	
		11- 20년	59 (38.8)	52 (34.2)	18 (11.9)	23 (15.1)	152 (36.0)		
		21년 이상	25 (25.3)	44 (44.4)	23 (23.2)	7 (7.1)	99 (23.5)		
	연임 경험	있음	132 (41.9)	105 (33.3)	46 (14.6)	32 (10.2)	315 (74.6)	x ² = 7.070 df=4 p=.070 c=0.128	
		없음	41 (38.3)	49 (45.8)	8 (7.5)	9 (8.4)	107 (25.4)		
	전체		173 (41.0)	154 (36.5)	54 (12.8)	41 (9.7)	422 (100)		
	학부 모	성별	남	34 (35.8)	33 (34.8)	16 (16.8)	12 (12.6)	95 (36.8)	x ² = 5.672 df=3 p=.129 c=0.147
			여	68 (41.7)	60 (36.8)	12 (7.4)	23 (14.1)	163 (63.2)	
전체		102 (39.5)	93 (36.1)	28 (10.8)	35 (13.6)	258 (100)			

* * * p<.001

(7) 학년전담제 운영 방법

학년전담제를 실시하면 매년 반복적인 내용의 교재 연구나 지도 방법이 되풀이되므로 연구를 소홀히 하고 타성에 빠질 염려도 있어 그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영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전담제 운영 방법에 대한 인식 경향을 전체적으로 보면 교원과 학부모 모두 “2년이 적정하다(교원 40.9%, 학부모 39.5%)”를 우선으로, “3-4년이 적정하다(교원 36.4%, 학부모 36.0%)”가 다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교원은 “가능하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13.0%)”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이 좋다(9.7%)“고 응답했고 학부모는 세 번째의 순으로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이 좋다(13.6%)” 가능하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10.9%)”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학년전담제 운영 방법에 대한 하위 변인별 인식을 살펴보면 교원의 경력별 인식에서 $p < .001$ 의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짧은 10년 이하의 교원은(52.1%) 11-20년 사이(38.8%)의 교원과 20년 이상의 교원(25.3%)에 비하여 학년전담제 운영 기간을 2년이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3-4년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순서는 반대로 20년 이상의 교원(44.4%), 11-20년 이상(34.2%), 10년 이하(33.9%)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항목에서도 고경력 교사의 순으로(20년 이상 23.2%, 11-20년 11.9%, 10년 이하 7.6%) 반응하고 있어 경력이 짧은 교원이 그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동일 학년을 전담하는 기간에 대해 길게 하

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실은 한창 활동이 왕성한 경력이 짧은 교원들이 매년 같은 학년을 전담하여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연구의 태만이나 지루함이 있을 것을 염려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며 학부모의 인식의 순서와도 같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학년전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됨을 시사한다.

<표 13> 교과전담제 확대 실시

N(%)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63 (48.5)	37 (28.5)	23 (17.7)	6 (4.6)	1 (0.7)	130 (30.7)	x ² = 1.864 df=4 p=.761 c=0.066	
		여	151 (51.5)	88 (30.0)	45 (15.4)	8 (2.7)	1 (0.4)	293 (69.3)		
	경력 별	10년 이하	70 (40.9)	57 (33.3)	35 (20.5)	8 (4.7)	1 (0.6)	171 (40.5)	x ² = 15.09. df=8 p=.057 c=0.186	
		11- 20년	92 (60.5)	39 (25.7)	16 (10.5)	4 (2.6)	1 (0.7)	152 (36.0)		
		21년 이상	52 (52.5)	29 (29.3)	16 (16.2)	2 (2.0)	0 (0.0)	99 (23.5)		
	연임 경험	있음	164 (52.1)	96 (30.5)	43 (13.6)	11 (3.5)	1 (0.3)	315 (74.6)	x ² = 5.388 df=4 p=.250 c=0.112	
		없음	50 (46.7)	29 (27.1)	24 (22.5)	3 (2.8)	1 (0.9)	107 (25.4)		
	전체		214 (50.7)	125 (29.6)	67 (15.9)	14 (3.3)	2 (0.5)	422 (100)		
	학부 모	성별	남	16 (16.8)	57 (60.0)	12 (12.6)	9 (9.5)	1 (1.1)	95 (36.7)	x ² = 5.073 df=4 p=.280 c=0.139
			여	24 (14.6)	90 (54.9)	36 (22.0)	14 (8.5)	0 (0.0)	164 (63.3)	
전체		40 (15.4)	147 (56.8)	48 (18.5)	23 (8.9)	1 (0.4)	259 (100)			

2. 학년전담제 실시를 위한 선행조건

(8) 교과전담교사제 확대 실시

현행 학급담임제에서는 고학년보다 저학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 저학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주당 수업 시수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려면 고학년에 대한 주당 수업시간의 경감을 비롯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인별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전담제의 실시의 선행 조건으로서 수업 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교과전담제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은 교원 80.2%, 학부모 72.2%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교과전담제의 확대 실시가 학년전담제 운영의 선행 조건으로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년전담제 실시전에 교과전담제 확대 실시의 필요성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 모두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경력이 많은 교원이(11-20년 86.2%, 20년 이상 81.8%) 10년 이하의 경력이 짧은 교원(74.2)보다 교과전담제 확대 실시의 필요성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고 있고, 남녀별 평균에서도 여교원의 평균이 81.5%로 남자 교원의 77.0%보다 교과전담제의 확대 실시를 높게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사실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 고등학교 교사보다 주당 수업 시수가 많다는 데서도 알 수 있고 그 보다도 같은 초등학교에서 저학년보다 고학년의 주당 수업 시수가 많은데도 그에 따른 아무런 보상이 없는 데서 오는 상대적인 불만이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고학년의 주당 수업 시수를 저학년을 기준으로 형평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표 14> 수업 시수 경감

N(%)

구 분		15시간 이하	16-20 시간	21-25 시간	26-30 시간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25 (19.2)	74 (56.9)	31 (23.9)	0 (0.0)	130 (30.7)	$\chi^2 = 1.133$ df=2 p=.568 c=0.052	
		여	69 (23.6)	153 (52.2)	71 (24.2)	0 (0.0)	293 (69.3)		
	경력 별	10년 이하	50 (29.2)	83 (48.5)	38 (22.2)	0 (0.0)	171 (40.5)	$\chi^2 = 10.788$ * df=4 p=.029 c=0.158	
		11- 20년	28 (18.4)	90 (59.2)	34 (22.4)	0 (0.0)	152 (36.0)		
		21년 이상	15 (15.1)	54 (54.6)	30 (30.3)	0 (0.0)	99 (23.5)		
	연임 경험	있음	70 (22.2)	171 (54.3)	74 (23.5)	0 (0.0)	315 (74.6)	$\chi^2 = 0.312$ df=2 p=.855 c=0.027	
		없음	23 (21.5)	56 (52.3)	28 (26.2)	0 (0.0)	107 (25.4)		
	전체		93 (22.0)	227 (53.8)	102 (24.2)	0 (0.0)	422 (100)		
	학부 모	성별	남	14 (14.7)	38 (40.0)	35 (36.8)	8 (8.4)	95 (36.7)	$\chi^2 = 0.821$ df=3 p=.845 c=0.056
			여	31 (18.9)	61 (37.2)	60 (36.6)	12 (7.3)	164 (63.3)	
전체		45 (17.4)	99 (38.2)	95 (36.7)	20 (7.7)	259 (100)			

* p<.05

(9) 수업 시수 경감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의 수업 시수 경감에 대한 본 조사의 전체적인 결과는 교원과(53.7%) 학부모(38.2%) 모두 “16-20시간”을 우선으로, “21-25시간”을 다음으로(교원 24.1%, 학부모 36.7%)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년전담제 운영의 적정 수업 시수는 교사 1인당 주당 16-20시간이라고 본다. 교원의 경우 경력별 변인에서 p<.05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다른 변인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16-20시간”의 경우

11-20년 사이의 교원이 59.2%, 20년 이상 54.6%, 10년 이하 48.5%로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경력이 짧은 교사보다 주당 수업 시수 시간이 많은 항목에 응답하고 있다. 21-25시간이 적당한 수업 시수라고 응답한 평균에서도 10년 이하의 교원이 22.2%, 11-20년은 22.4%로 비슷한 평균을 보인 반면 20년 이상의 교원은 30.3%가 반응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교과전담제를 확대 실시하여 수업 시수를 현행보다 더욱 줄여서 운영한다면 효율적인 학년전담제가 정착될 것임을 시사한다.

(10) 교과목 축소 조정

<표 15> 교과목 축소 조정 N(%)

구분		5과목 이하	6과목	7과목	8과목 이상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76 (58.4)	40 (30.8)	14 (10.8)	0 (0.0)	130 (30.7)	$x^2 = 1.533$ $df=3$ $p=.675$ $c=0.060$	
		여	168 (57.3)	94 (32.1)	28 (9.6)	3 (1.0)	293 (69.3)		
	경력별	10년 이하	92 (53.8)	62 (36.3)	16 (9.3)	1 (0.6)	171 (40.5)	$x^2 = 4.356$ $df=6$ $p=.692$ $c=0.101$	
		11-20년	90 (59.2)	43 (28.3)	18 (11.8)	1 (0.7)	152 (36.0)		
		21년 이상	62 (62.6)	29 (29.3)	8 (8.1)	0 (0.0)	99 (23.5)		
	연임경험	있음	180 (57.2)	104 (33.0)	30 (9.5)	1 (0.3)	315 (74.6)	$x^2 = 1.593$ $df=3$ $p=.661$ $c=0.061$	
		없음	64 (59.8)	30 (28.1)	12 (11.2)	1 (0.9)	107 (25.4)		
	전체		244 (57.8)	134 (31.8)	42 (9.9)	2 (0.5)	422 (100)		
	학부모	성별	남	42 (44.2)	35 (36.8)	14 (14.8)	4 (4.2)	95 (36.7)	$x^2 = 4.091$ $df=3$ $p=.252$ $c=0.125$
			여	54 (32.9)	79 (48.2)	22 (13.4)	9 (5.5)	164 (63.3)	
전체		96 (37.1)	114 (44.0)	36 (13.9)	13 (5.0)	259 (100)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10개 이상의 교과를 가르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지도 내용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과목 수를 축소 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본 조사에서 “교육 정책적으로 교과전담제 교사 수를 늘려서 학년전담제와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면 주당 수업 시간이 줄게 되므로 지도 과목 수도 줄게 됩니다. 이때 몇 과목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하는 설문에 대한 결과에서는 각 하위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15>에 나타나 바와 같이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의 교과목 수 축소 조정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교원은 5과목 이하(57.7%), 6과목 (31.7%), 7과목(9.9%), 8과목 이상(0.7%)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부모는 6과목(44.0%), 5과목 이하(37.1%), 7과목(13.9%), 8과목 이상(5.0%)의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경력별 반응을 살펴보면 5과목 이하에 응답한 20년 이상의 교원이 62.6%로 11-20년 59.2%와 10년 이하의 교원 53.8%보다 교과목 수의 축소 조정에 있어서 가장 적은 교과목 수에 반응하여 수업 시수 경감의 결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수업 시수에서는 고경력 교사가 대체로 많은 수업 시수에 반응을 보였으나 교과목 수에 있어서는 가장 적은 과목 수에 높게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경력 교원들이 오랫동안의 교육 경험에 의한 결과 현재 초등학교 아동에게 지도해야 할 교과목 수가 많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효율적인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5-6과목 정도로 교과목 수를 줄여야 함을 시사한다.

(11) 초과수업 시수에 대한 경제적 보상

현행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 고등학교 교사보다 주당 수업 시수가 많고 그 보다는 같은 초등학교에서도 저학년보다 고학년의 주당 수업 시수가 많은데도 그에 따른 아무런 보상이 없는 데서 오는 상대적인 불만이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고학년의 주당 수업 시수를 저학년을 기준으로 형평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겠다.

<표 16> 초과수업 시수에 대한 경제적 보상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71 (54.6)	40 (30.8)	12 (9.2)	6 (4.6)	130 (30.7)	x ² = 5.788 df=4 p=.2160 c=0.116	
		여	176 (60.1)	84 (28.7)	28 (9.5)	5 (1.7)	293 (69.3)		
	경력 별	10년 이하	96 (56.1)	48 (28.1)	21 (12.3)	6 (3.5)	171 (40.5)	x ² = 11.728 df=8 p=.164 c=0.164	
		11- 20년	98 (64.5)	39 (25.7)	12 (7.9)	3 (1.9)	152 (36.0)		
		21년 이상	53 (53.5)	37 (37.4)	6 (6.1)	2 (2.0)	99 (23.5)		
	연임 경험	있음	179 (56.8)	96 (30.5)	31 (9.9)	8 (2.5)	315 (74.6)	x ² = 1.966 df=4 p=.742 c=0.068	
		없음	68 (63.5)	28 (26.2)	8 (7.5)	3 (2.8)	107 (25.4)		
	전체		247 (58.5)	124 (29.4)	39 (9.3)	11 (2.6)	422 (100)		
	학부 모	성별	남	3 (3.2)	42 (44.2)	27 (28.4)	21 (22.1)	95 (36.7)	x ² = 1.532 df=4 p=.821 c=0.077
			여	9 (5.5)	69 (42.1)	53 (32.3)	30 (18.3)	164 (63.3)	
전체		12 (4.6)	111 (42.9)	80 (30.9)	51 (19.7)	259 (100)			

<표 16>에 의하면 교과전담교사제의 확대 실시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당 수업 시수를 초과하여 수업한 교사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선행 조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분석 결과 각 하위 변인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원은 87.8%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학부모는 47.5%로 교원과는 매우 다른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임 경험별로는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경력별로는 고경력 교사가 10년 이하의 교사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교원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저학년을 기준으로 주당 초과 수업 시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7>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 N(%)

구분		고학년 담임 수업 시수 경감	교사 잡무 경감	초과 수업에 대한 수당 지급	지도 교과목 수 축소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41 (31.5)	48 (36.9)	27 (20.8)	14 (10.8)	130 (30.7)	x ² = 2.730 df=3 p=.435 c=0.080	
		여	101 (34.5)	107 (36.5)	44 (15.0)	41 (14.0)	293 (69.3)		
	경력 별	10년 이하	53 (31.0)	69 (40.4)	29 (16.9)	20 (11.7)	171 (40.5)	x ² = 2.780 df=6 p=.836 c=0.081	
		11- 20년	52 (34.2)	52 (34.2)	28 (18.4)	20 (13.2)	152 (36.0)		
		21년 이상	37 (37.4)	34 (34.4)	14 (14.1)	14 (14.1)	99 (23.5)		
	연임 경험	있음	102 (32.4)	114 (36.2)	50 (15.9)	49 (15.5)	315 (74.6)	x ² = 8.753 * df=3 p=.033 c=0.143	
		없음	40 (37.4)	41 (38.3)	21 (19.6)	5 (4.7)	107 (25.4)		
	전체		142 (33.7)	155 (36.7)	71 (16.8)	54 (12.8)	422 (100)		
	학부 모	성별	남	13 (13.7)	57 (60.0)	9 (9.5)	16 (16.8)	95 (36.7)	x ² = 0.617 df=3 p=.892 c=0.049
			여	21 (12.8)	93 (56.7)	20 (12.2)	30 (18.3)	164 (63.3)	
전체		34 (13.1)	150 (57.9)	29 (11.2)	46 (17.8)	259 (100)			

* p<.05

(12) 정책 과제 및 결정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담임제로는 아동의 교과 및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년전담제가 확대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고 학년전담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 당국이 교육 과정 운영의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 결과는 <표 17>과 같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교사 잡무 경감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교원 36.6%, 학부모 57.9%). 다음 순위로는 교원은 고학년 담임 수업 시수 경감(33.6%), 초과 수업에 대한 수당 지급(16.8%), 지도 교과목 수 축소(13.0%)라고 반응했고 학부모는 지도 교과목 수 축소(17.8%), 고학년 담임 수업 시수 경감(13.1%) 초과 수업에 대한 수당 지급(11.2%)의 순으로 응답하여 교원과 견해가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하위 변인에서는 교원의 연임 경험에 따라 $p < .05$ 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학년 담임 수업 시수 경감”과 “교사 잡무 경감”, “초과 수업에 대한 수당 지급”의 항목에서는 비슷한 평균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지도 교과목 수 축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동일 학년을 연임한 경험이 있는 교원은 15.5%가 응답했고, 연임 경험이 없는 교원은 4.7%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본 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전담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이를 운영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당국이 교육과정 운영의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결정으로 우선 교원들의 잡무를 경감시키고, 고학년 담임 교사들의 수업 시수를 줄여나가는 정책 결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표 18> 정책 결정 과제의 해결책임

N(%)

구분		교육 행정 당국의 정책에 달려있다	교사의 학년 전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	학교 경영자의 학년 전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	학부형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73 (56.1)	20 (15.4)	33 (25.4)	4 (3.1)	130 (30.9)	$x^2 = 3.738$ df=3 p=.291 c=0.094
		여	163 (56.0)	48 (16.5)	78 (26.8)	2 (0.7)	293 (69.1)	
	경력별	10년 이하	90 (52.9)	32 (18.8)	45 (26.5)	3 (1.8)	170 (40.5)	$x^2 = 4.950$ df=6 p=.550 c=0.108
		11-20년	93 (61.2)	23 (15.1)	35 (23.0)	1 (0.7)	152 (36.2)	
21년 이상		53 (54.1)	13 (13.3)	31 (31.6)	1 (1.0)	98 (23.3)		
연임 경험	있음	176 (56.1)	46 (14.7)	89 (28.3)	3 (0.9)	314 (74.8)	$x^2 = 4.133$ df=3 p=.247 c=0.099	
	없음	60 (56.6)	22 (20.8)	22 (20.8)	2 (1.8)	106 (25.2)		
전체		236 (56.2)	68 (16.2)	111 (26.4)	5 (1.2)	420 (100)		
학부모	성별	남	34 (35.8)	37 (39.0)	18 (18.9)	6 (6.3)	95 (36.7)	$x^2 = 3.671$ df=3 p=.299 c=0.118
		여	53 (32.3)	61 (37.2)	27 (16.5)	23 (14.0)	164 (63.3)	
	전체	87 (3.6)	98 (37.8)	45 (17.4)	29 (11.2)	259 (100)		

<표 18>의 “학년전담제 운영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누구에게 가장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는 하위 변인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교원과 학부모가 보인 전체적인 반응을 보면 “교육행정 당국의 정책에 달려있다(56.1%, 33.6%),

“학교 경영자의 학년전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26.4%, 17.4%),” “교사의 학년전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16.2%, 37.8%), 학부형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1.4%, 11.2%)”라고 나타났다. 교사들은 경력별이나 연임 경험에 의한 차이가 거의 없이 행정당국과 학교 경영자의 의지를 우선으로 보고 있어 학년전담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당국의 정책 결정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표 19> 수업기술의 향상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31 (23.8)	62 (47.7)	24 (18.5)	12 (9.2)	1 (0.8)	130 (30.7)	x ² = 16.085 * df=4 p=.003 c=0.191	
		여	85 (29.0)	147 (50.2)	56 (19.1)	4 (1.4)	1 (0.3)	293 (69.3)		
	경력별	10년 이하	37 (21.6)	85 (49.7)	43 (25.2)	5 (2.9)	1 (0.6)	171 (40.5)	x ² = 13.193 df=8 p=.105 c=0.174	
		11-20년	47 (30.9)	75 (49.3)	25 (16.5)	5 (3.3)	0 (0.0)	152 (36.0)		
		21년 이상	32 (32.3)	48 (48.5)	12 (12.1)	6 (6.1)	1 (1.0)	99 (23.5)		
		연임 경험	있음	91 (28.9)	147 (46.7)	62 (19.7)	13 (4.1)	2 (0.6)		315 (74.6)
	없음	25 (23.4)	61 (57.0)	18 (16.8)	3 (2.8)	0 (0.0)	107 (25.4)			
	전체		116 (27.5)	208 (49.3)	80 (18.9)	16 (3.8)	2 (0.5)	422 (100)		
	학부모	성별	남	5 (5.3)	55 (57.9)	26 (27.4)	8 (8.4)	1 (1.0)	95 (36.7)	x ² = 7.915 df=4 p=.095 c=0.172
			여	11 (6.7)	71 (43.3)	49 (29.9)	32 (19.5)	1 (0.6)	164 (63.3)	
전체		16 (6.2)	126 (48.7)	75 (28.9)	40 (15.4)	2 (0.8)	259 (100)			

* p<.05

3. 학년전담제 실시의 효과성

(13) 수업기술의 향상

<표 19>에 의하면 학년전담제 실시로 수업기술이 향상될 것이라는 효과성에 대한 설문에 대한 반응은 전체적으로 보면 76.8%의 교원이 수업기술의 향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 학부모는 54.8%가 긍정적인 반응을, 29.0%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교원과는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하위 변인을 살펴보면 교원의 성별에서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자 교원의 79.2%가 남자 교원의 71.5%보다 학년전담제 실시로 인한 수업기술의 향상에 대한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

교원의 경력면에서 살펴보면 10년 이하의 교원(71.3%)보다 11-20년(80.2%)과 21년 이상(80.8%)의 고경력 교원들이 학년전담제의 수업 기술 향상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임 경험별 비교에서는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연임 경험이 없는 교사가(80.4%) 연임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75.6%) 더 높게 인식하고 있어 매년 학년을 바꾸어 가며 지도해야 하는 교사가 애로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의 경우 남자가(63.2%) 여자(50.0%)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같은 학부모의 입장에서조차 남자와 여자의 견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0> 학년전문가 양성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 증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38 (29.2)	45 (34.6)	31 (23.9)	14 (10.8)	2 (1.5)	130 (30.7)	x ² = 10.689 * df=4 p=.030 c=0.157
		여	102 (34.8)	126 (43.0)	49 (16.7)	13 (4.5)	3 (1.0)	293 (69.3)	
	경력 별	10년 이하	45 (26.3)	75 (43.9)	37 (21.6)	11 (6.4)	3 (1.8)	171 (40.5)	x ² = 17.506 * df=8 p=.025 c=0.200
		11- 20년	54 (35.5)	62 (40.8)	31 (20.4)	5 (3.3)	0 (0.0)	152 (36.0)	
		21년 이상	34 (40.4)	34 (34.4)	12 (12.1)	11 (11.1)	2 (2.0)	99 (23.5)	
	연임 경험	있음	107 (34.0)	121 (38.4)	62 (19.7)	20 (6.3)	5 (1.6)	315 (74.6)	x ² = 3.811 df=4 p=.432 c=0.095
없음		32 (29.9)	50 (46.7)	18 (16.8)	7 (6.6)	0 (0.0)	107 (25.4)		
전체		139 (32.9)	171 (40.5)	80 (19.0)	27 (6.4)	5 (1.2)	422 (100)		
학부 모	성별	남	10 (10.5)	56 (58.9)	22 (23.2)	7 (7.4)	0 (0.0)	95 (36.7)	x ² = 5.539 df=4 p=.236 c=0.145
		여	15 (9.1)	78 (47.6)	48 (29.3)	20 (12.2)	3 (1.8)	164 (63.3)	
	전체	25 (9.7)	134 (51.7)	70 (27.0)	27 (10.4)	3 (1.2)	259 (100)		

* p<.05

(14) 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 증진

<표 20>에서 보듯이 전체적인 반응은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응답이 교원 73.5%, 학부모 65.2%, 보통이라고 응답한 교원 18.9%, 학부모 25.1%로 나타나고 있다. 하위 변인별 유의 수준을 검증한 결과 학부모의 성별과 교원의 연임경험별로는 p>.05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원의 성별과 경력별은 p<.05로 나타나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성별에서는 여교원이(77.8%) 남교원(63.8%)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반응하고 있으며, 경력별 반응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10년 이하가 70.2%, 11-20년이 76.3%, 21년 이상의 교원은 74.8%가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년전담제 운영의 필요성에서도 여교원(73.0%)이 남교원(60.7%)보다 높게 반응하고 있어 학년전담제 운영에 거는 기대가 남교원보다 여교원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1> 학년전문가 양성

N(%)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38 (29.2)	51 (39.2)	27 (20.8)	13 (10.0)	1 (0.8)	130 (30.7)	x ² = 13.251 * * df=4 p=.010 c=0.174
		여	93 (31.7)	142 (48.5)	49 (16.7)	9 (3.1)	0 (0.0)	293 (69.3)	
	경력 별	10년 이하	44 (25.7)	86 (50.3)	32 (18.7)	9 (5.3)	0 (0.0)	171 (40.5)	x ² = 11.802 df=8 p=.160 c=0.165
		11- 20년	50 (32.9)	72 (47.4)	24 (15.8)	6 (3.9)	0 (0.0)	152 (36.0)	
		21년 이상	37 (37.4)	34 (34.3)	20 (20.2)	7 (7.1)	1 (1.0)	99 (23.5)	
	연임 경험	있음	101 (32.1)	137 (43.5)	59 (18.7)	17 (5.4)	1 (0.3)	315 (74.6)	x ² = 2.294 df=4 p=.682 c=0.074
없음		30 (28.0)	55 (51.4)	17 (15.9)	5 (4.7)	0 (0.0)	107 (25.4)		
전체		131 (31.1)	192 (45.5)	76 (18.0)	22 (5.2)	1 (0.2)	422 (100)		
학부 모	성별	남	5 (5.3)	52 (54.7)	27 (28.4)	11 (11.6)	0 (0.0)	95 (36.7)	x ² = 4.233 df=4 p=.375 c=0.127
		여	11 (6.7)	72 (43.9)	57 (34.8)	21 (12.8)	3 (1.8)	164 (63.3)	
	전체	16 (6.2)	124 (47.9)	84 (32.4)	32 (12.4)	3 (1.1)	259 (100)		

* * p<.01

<표 21>의 전체적인 반응을 보면 전문성이 신장되어 학년전문가를 양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원은 76.6%로 비교적 높게 반응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경우에는 54.1%가 긍정적인 반응을, 32.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교원과는 견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위 변인별 유의 수준을 검증한 결과 학부모의 성별과 교원의 경력별, 연임경험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교원의 성별에서 $p < .01$ 의 매우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성별 반응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여교원(80.2%)이 남교원(68.2%)보다 훨씬 높게 반응하여 학년전담제 실시로 학년전문가 양성의 효과에도 여교원의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2> 자료의 활용에 대한 효과성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37 (28.5)	62 (47.7)	23 (17.7)	7 (5.4)	1 (0.7)	130 (30.7)	$x^2 = 5.495$ df=4 p=.243 c=0.113
		여	99 (33.8)	137 (46.8)	51 (17.4)	5 (1.7)	1 (0.3)	293 (69.3)	
	경력별	10년 이하	46 (26.9)	83 (48.5)	36 (21.1)	5 (2.9)	1 (0.6)	171 (40.5)	$x^2 = 8.707$ df=8 p=.368 c=0.142
		11-20년	50 (32.9)	76 (50.0)	23 (15.1)	3 (2.0)	0 (0.0)	152 (36.0)	
		21년 이상	39 (39.4)	40 (40.4)	15 (15.2)	4 (4.0)	1 (1.0)	99 (23.5)	
	연임경험	있음	105 (33.3)	143 (45.4)	56 (17.8)	9 (2.9)	2 (0.6)	315 (74.6)	$x^2 = 2.238$ df=4 p=.692 c=0.073
		없음	30 (28.0)	56 (52.4)	18 (16.8)	3 (2.8)	0 (0.0)	107 (25.4)	
전체		135 (32.0)	199 (47.2)	74 (17.5)	12 (2.8)	2 (0.5)	422 (100)		
학부모	성별	남	9 (9.5)	52 (54.7)	24 (25.3)	9 (9.5)	1 (1.0)	95 (36.7)	$x^2 = 4.183$ df=4 p=.382 c=0.126
		여	19 (11.6)	70 (42.7)	47 (28.7)	26 (15.8)	2 (1.2)	164 (63.3)	
	전체	28 (10.8)	122 (47.1)	71 (27.4)	35 (13.5)	3 (1.2)	259 (100)		

(15) 자료의 활용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해마다 구입 및 제작된 자료는 담당했던 학년이 바뀌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수업 시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제작하여 활용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전담제 운영의 자료 활용 효과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경향은 각 하위 변인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교원의 79.2%와 학부모 57.9%가 그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학년전담제가 확대 실시되면 해마다 구입 및 수집 제작된 자료를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표 23> 자료의 보관에 대한 효과성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50 (38.5)	48 (36.9)	22 (16.9)	9 (6.9)	1 (0.8)	130 (30.7)	x ² = 16.532 * df=4 p=.002 c=0.194
		여	142 (48.5)	121 (41.3)	23 (7.8)	7 (2.4)	0 (0.0)	293 (69.3)	
	경력별	10년 이하	73 (42.7)	70 (40.9)	20 (11.7)	7 (4.1)	1 (0.6)	171 (40.5)	x ² = 4.902 df=8 p=.768 c=0.107
		11-20년	69 (45.4)	65 (42.8)	13 (8.5)	5 (3.3)	0 (0.0)	152 (36.0)	
		21년 이상	50 (50.5)	33 (33.3)	12 (12.1)	4 (4.1)	0 (0.0)	99 (23.5)	
	연임경험	있음	138 (43.8)	127 (40.3)	39 (12.4)	11 (3.5)	0 (0.0)	315 (74.6)	x ² = 7.532 df=4 p=.110 c=0.132
없음		54 (50.5)	41 (38.3)	6 (5.6)	5 (4.7)	1 (0.9)	107 (25.4)		
전체		192 (45.5)	168 (39.8)	45 (10.7)	16 (3.8)	1 (0.2)	422 (100)		
학부모	성별	남	13 (13.7)	59 (62.1)	19 (20.0)	3 (3.2)	1 (1.0)	95 (36.7)	x ² = 3.808 df=4 p=.433 c=0.120
		여	32 (19.5)	89 (54.3)	29 (17.7)	12 (7.3)	2 (1.2)	164 (63.3)	
	전체	45 (17.4)	148 (57.1)	48 (18.5)	15 (5.8)	3 (1.2)	259 (100)		

* p<.05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85.4%의 교사와 74.5%의 학부모가 학년 전담제 실시로 자료 보관에 대한 효과를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해마다 학년이 바뀔에 따라 구입 및 수집 제작된 자료를 보관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나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자료를 보관 관리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하위 변인별로 보면 교사의 성별에서 $p < .05$ 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교원의 75.4%와 여교원의 89.8%가 자료의 보관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여교원이 남교원보다 효과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4> 공·사 교육비 절감의 효과성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35 (26.9)	47 (36.2)	33 (25.4)	14 (10.8)	1 (0.7)	130 (30.7)	$x^2 = 8.447$ df=4 p=.077 c=0.140
		여	97 (33.1)	120 (40.9)	60 (20.5)	16 (5.5)	0 (0.0)	293 (69.3)	
	경력별	10년 이하	48 (28.1)	68 (39.8)	37 (21.6)	18 (10.5)	0 (0.0)	171 (40.5)	$x^2 = 13.385$ df=8 p=.099 c=0.175
		11-20년	44 (28.9)	64 (42.1)	38 (25.0)	5 (3.3)	1 (0.7)	152 (36.0)	
		21년 이상	40 (40.4)	34 (34.3)	18 (18.2)	7 (7.1)	0 (0.0)	99 (23.5)	
	연임경험	있음	101 (32.1)	119 (37.8)	71 (22.5)	23 (7.3)	1 (0.3)	315 (74.6)	$x^2 = 1.558$ df=4 p=.816 c=0.061
없음		31 (29.0)	47 (43.9)	22 (20.6)	7 (6.5)	0 (0.0)	107 (25.4)		
전체		132 (31.3)	166 (39.4)	93 (22.0)	30 (7.1)	1 (0.2)	422 (100)		
학부모	성별	남	15 (15.8)	47 (49.5)	26 (27.3)	7 (7.4)	0 (0.0)	95 (36.7)	$x^2 = 3.664$ df=4 p=.453 c=0.118
		여	19 (11.6)	79 (48.2)	43 (26.2)	21 (12.8)	2 (1.2)	164 (63.3)	
	전체	34 (13.1)	126 (48.7)	69 (26.6)	28 (10.8)	2 (0.8)	259 (100)		

(17) 공·사 교육비 절감의 효과성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매년 학년 담임이 바뀌기 때문에 당해 학년 교과 지도에 수집 및 제작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므로 학교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학생들도 스스로 준비물을 마련하게 되어 공·사 교육비가 많이 들고 있다.

<표 24>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인식 경향으로는 교원의 70.7%와 학부모의 61.7%가 학년전담제 실시로 공·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경력별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면 10년 이하는 67.9%, 11-20년의 교사는 71.0%, 21년 이상의 교사는 72.9%가 공·사 교육비 절감의 효과성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력이 오래일수록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자료의 보관과 관리 활용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공·사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임 경험별에서는 연임 경험이 없는 교원이(72.9%) 연임 경험이 있는 교원보다(69.9%) 다소 높게 반응하였다. 이러한 반응으로 보아 동일 학년을 2년 이상 연임한 경험이 없는 교원은 해마다 학년을 바꿔가며 담임하면서 사장되는 자료로 인한 공·사 교육비의 낭비에 대해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5> 교재 연구의 시간 및 노력 절감의 효과성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41 (31.5)	65 (50.0)	19 (14.6)	4 (3.1)	1 (0.8)	130 (30.7)	$x^2 = 3.184$ df=4 p=.527 c=0.086	
		여	116 (39.6)	133 (45.4)	33 (11.3)	10 (3.4)	1 (0.3)	293 (69.3)		
	경력별	10년 이하	56 (32.8)	84 (49.1)	24 (14.0)	7 (4.1)	0 (0.0)	171 (40.5)	$x^2 = 8.564$ df=8 p=.380 c=0.142	
		11-20년	59 (38.8)	69 (45.4)	16 (10.5)	6 (4.0)	2 (1.3)	152 (36.0)		
		21년 이상	42 (42.4)	44 (44.5)	12 (12.1)	1 (1.0)	0 (0.0)	99 (23.5)		
	연임경험	있음	117 (37.2)	139 (44.1)	45 (14.3)	12 (3.8)	2 (0.6)	315 (74.6)	$x^2 = 7.212$ df=4 p=.125 c=0.130	
		없음	40 (37.4)	58 (54.2)	7 (6.5)	2 (1.9)	0 (0.0)	107 (25.4)		
	전체		157 (37.2)	197 (46.7)	52 (12.3)	14 (3.3)	2 (0.5)	422 (100)		
	학부모	성별	남	9 (9.5)	52 (54.7)	24 (25.3)	10 (10.5)	0 (0.0)	95 (36.7)	$x^2 = 4.027$ df=4 p=.402 c=0.124
			여	10 (6.1)	82 (50.0)	49 (29.9)	19 (11.6)	4 (2.4)	164 (63.3)	
전체		19 (7.4)	134 (51.7)	73 (28.2)	29 (11.2)	4 (1.5)	259 (100)			

(18) 교재 연구의 시간 및 노력 절감의 효과성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매년 같은 학년을 반복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교과 지식 구조를 잘 알게된다. 따라서 교재 연구나 지도 방법이 보다 쉬워질 것이므로 여기에 들이는 노력이 많이 절감되어 자기 연수의 충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표 25>에서 보듯이 본 조사에서는 하위 변인별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인식 경향은 교원의

83.9%와 학부모의 58.0%가 학년전담제 실시의 효과로 연구에 들이는 노력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력별로는 고경력으로 갈수록(10년 이하 81.9%, 11-20년 84.2%, 21년 이상 86.9%) 연구에 들이는 노력의 절감 효과에 대하여 높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신규 교사나 고경력 교사가 교재 연구나 지도 방법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같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담임제에서 고경력 교사들이 느끼는 고충이 더 많음을 시사한다.

<표 26> 자기 연수의 충실에 대한 효과성 N(%)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성별	남	32 (24.6)	49 (37.7)	31 (23.8)	17 (13.1)	1 (0.8)	130 (30.7)	x ² = 11.728 * df=4 p=.019 c=0.164
		여	74 (25.2)	147 (50.2)	55 (18.8)	15 (5.1)	2 (0.7)	293 (69.3)	
	경력별	10년 이하	32 (18.7)	86 (50.3)	38 (22.2)	14 (8.20)	1 (0.6)	171 (40.5)	x ² = 10.676 df=8 p=.221 c=0.157
		11-20년	46 (30.3)	69 (45.4)	26 (17.1)	11 (7.2)	0 (0.0)	152 (36.0)	
		21년 이상	28 (28.3)	41 (41.4)	21 (21.2)	7 (7.1)	2 (2.0)	99 (23.5)	
	연임 경험	있음	86 (27.3)	135 (42.9)	64 (20.3)	27 (8.6)	3 (0.9)	315 (74.6)	x ² = 8.440 df=4 p=.077 c=0.140
		없음	20 (18.7)	61 (57.0)	21 (19.6)	5 (4.7)	0 (0.0)	107 (25.4)	
전체		106 (25.1)	196 (46.5)	85 (20.1)	32 (7.6)	3 (0.7)	422 (100)		
학부모	성별	남	3 (3.2)	57 (60.0)	25 (26.3)	10 (10.5)	0 (0.0)	95 (36.7)	x ² = 10.143 * df=4 p=.038 c=0.194
		여	7 (4.3)	66 (40.2)	62 (37.8)	27 (16.5)	2 (1.2)	164 (63.3)	
		전체	10 (3.9)	123 (47.5)	87 (33.6)	37 (14.3)	2 (0.7)	259 (100)	

* p<.05

(19) 자기 연수의 충실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교사의 심리적, 시간적 부담이 경감되어 자기 연수의 충실을 가져올 것이다.”에 대한 응답은 <표 26>과 같다.

<표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전담제 실시로 교사의 심리적, 시간적 부담이 경감되어 자기 연수의 충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체적인 인식 결과로는 교원 71.4%와 학부모의 51.4%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반응하여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식의 차이분석 결과는 하위 변인별로 교원의 성별과 학부모의 성별에서 $p<.05$ 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교원이 62.3%, 여교원이 75.4%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학년전담제 실시의 효과로 자기 연수의 충실에 거는 기대가 여교원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학부모의 성별에서는 남자가 63.2%로 교사의 자기 연수의 충실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자는 44.5%로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다.

4. 학년전담제에 대한 인식 차이

학년전담제 운영 실시에 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는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7> 학년전담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110 (26.0)	183 (43.3)	80 (18.9)	35 (8.3)	15 (3.6)	423 (62.0)	$\chi^2 = 49.255 * * *$ $df=4$ $p=.001$ $c=0.260$
학부모	27 (10.4)	90 (34.8)	75 (29.0)	53 (20.5)	14 (5.4)	259 (38.0)	
계	137 (20.1)	273 (40.0)	155 (22.7)	88 (12.9)	29 (4.3)	682 (100)	

* * * $p < .001$

학년전담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원은 69.3%, 학부모는 45.2%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p < .001$ 의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원이 69.3%로 학년전담제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 반면 학부모는 이보다 낮은 45.1%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교원보다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초등학교 교원들은 해마다 학년 담임이 바뀔에 따라 대상 학년의 교과 지식이나 학생지도에 대한 애로점이 많아 학년전담제 운영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이를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8> 학년전담제 운영의 교과관련 활동에 대한 인식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170 (40.2)	200 (47.3)	34 (8.0)	14 (3.3)	5 (1.2)	423 (62.0)	x ² = 88.283 * * * df=4 p=.001 c=0.
학부모	31 (11.9)	135 (52.1)	49 (18.9)	38 (14.7)	6 (2.3)	259 (38.0)	
계	201 (29.5)	335 (49.1)	83 (12.2)	52 (7.6)	11 (1.6)	682 (100)	

* * * p<.001

학년전담제 운영의 교과관련 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표 28>과 같으며 p<.001의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교원의 87.5%가 학년전담제 운영으로 인한 효율적인 교과관련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의 64.0%는 교원보다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이나 학부모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학년전담제가 교과관련 활동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9> 학년전담제 운영의 수업 기술 향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172 (40.7)	187 (44.2)	38 (9.0)	22 (5.2)	4 (0.9)	423 (62.0)	x ² = 92.416 * * * df=4 p=.001 c=0.345
학부모	28 (10.8)	127 (49.0)	71 (27.4)	30 (11.6)	3 (1.2)	259 (38.0)	
계	200 (29.3)	314 (46.1)	109 (16.0)	52 (7.6)	7 (1.0)	682 (100)	

* * * p<.001

학년전담제 운영의 수업 기술 향상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의 차이는 <표 29>와 같다.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업 기술 향상에 대하여 교원 84.9%, 학부모 59.8%로 교원보다 학부모의 인식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직접 교육의 현장에서 현재 10개 교과 이상을 지도해야 하는 교원들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그 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0> 학년전담제 운영의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150 (35.5)	213 (50.4)	39 (9.2)	15 (3.6)	6 (1.4)	423 (62.0)	$\chi^2 = 54.427 * * *$ $df=4$ $p=.001$ $c=0.272$
학부모	35 (13.5)	142 (54.8)	53 (20.5)	25 (9.7)	4 (1.5)	259 (38.0)	
계	185 (27.1)	355 (52.0)	92 (13.5)	40 (5.9)	10 (1.5)	682 (100)	

* * * $p < .001$

학년전담제 운영의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교원(85.9%)과 학부모(68.3%) 모두 학년전담제 운영으로 생활지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원이 훨씬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생활지도상 많은 고충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두 집단간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 학년전담제 운영의 특별활동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100 (23.6)	169 (40.0)	110 (26.0)	37 (8.8)	7 (1.7)	423 (62.0)	x ² = 14.709 * * df=4 p=.005 c=0.145
학부모	34 (13.1)	135 (52.1)	65 (25.1)	22 (8.5)	3 (1.2)	259 (38.0)	
계	134 (19.6)	304 (44.6)	175 (25.7)	59 (8.6)	10 (1.5)	682 (100)	

* * p<.01

학년전담제 운영의 특별활동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은 두 집단간에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교원은 63.6%, 학부모는 65.2%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학부모의 반응이 다소 높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 개개인의 창의성과 소질 계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학년전담제 운영으로 인한 특별활동의 효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2> 학년전담제 운영의 학교(급) 업무경감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90 (21.3)	175 (41.4)	97 (22.9)	44 (10.4)	17 (4.0)	423 (62.0)	x ² = 24.698 * * * df=4 p=.001 c=0.187
학부모	28 (10.8)	150 (57.9)	59 (22.8)	18 (7.0)	4 (1.5)	259 (38.0)	
계	118 (17.3)	325 (47.6)	156 (22.9)	62 (9.1)	21 (3.1)	682 (100)	

* * * p<.001

학년전담제 운영의 학교(급) 업무경감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두 집단간에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교원은 62.7%, 학부모는 68.7%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학부모가 교원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오랫동안 교직 생활에 몸담아온 교원들은 학년전담제가 실시되어도 잡무 등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향이 있고 학부모들은 학년전담제의 운영으로 교재 연구나 교과 지도에 들이는 시간이 많이 절감된다면 그것으로 많은 업무경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업무경감 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3> 학년 배정의 애로점 경감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143 (33.8)	157 (37.1)	82 (19.4)	37 (8.8)	4 (0.9)	423 (62.0)	x ² = 74.150 * * * df=4 p=.001 c=0.313
학부모	15 (5.8)	121 (46.7)	87 (33.6)	34 (13.1)	2 (0.8)	259 (38.0)	
계	158 (23.2)	278 (40.8)	169 (24.8)	71 (10.4)	6 (0.9)	682 (100)	

* * * p<.001

학년전담제 운영으로 학년 배정의 애로점이 경감될 것이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두 집단간에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원의 70.9%와 학부모의 52.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교원의 기대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 경영자들이 매년 학기초마다 희망 학년과 교사의 수가 일치하지 않아 담임 배정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34> 학년 배정에 따른 불만 해소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74 (17.5)	125 (29.6)	138 (32.6)	68 (16.1)	18 (4.3)	423 (62.0)	$\chi^2 =$ 23.841 * * * df=4 p=.001 c=0.184
학부모	13 (5.0)	99 (38.2)	93 (35.9)	42 (16.2)	12 (4.6)	259 (38.0)	
계	87 (12.8)	224 (32.8)	231 (33.9)	110 (16.1)	30 (4.4)	682 (100)	

* * * $p<.001$

학년전담제 운영으로 학년 배정에 따른 교사 상호간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는 설문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는 <표 34> 와 같다. 두 집단 사이에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교원의 47.1%와 학부모의 43.2%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반응하고 있어 학년전담제가 실시되어도 교사 상호간의 학년 배정에 따른 불만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은 수업 시수가 같아진다

하여도 학년 사무에 따른 업무나 학습 지도 등이 저학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학년 담임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학부모도 이런 사실을 감안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경영자들의 융통성 있는 학교 경영으로 업무 분장이나 학교 사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있는 학년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됨을 시사한다.

<표 35> 학년전담제 운영에 따른 연구의 태만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50 (11.8)	135 (31.9)	113 (26.7)	91 (21.5)	34 (8.1)	423 (62.0)	x ² = 28.259 * * * df=4 p=.001 c=0.199
학부모	47 (18.2)	115 (44.4)	55 (21.2)	37 (14.3)	5 (1.9)	259 (38.0)	
계	97 (14.2)	250 (36.7)	168 (24.6)	128 (18.8)	39 (5.7)	682 (100)	

* * * p<.001

학년전담제 운영으로 같은 학년을 계속 담임하게 될 때 교사들이 교재 연구나 학습 지도 등에 태만해 질 수 있는냐는 설문에 대하여 교원과 학부모 두 집단 사이에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원의 43.7%와 학부모의 62.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년전담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교원에 비하여 학부모가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의 일면을 엿볼 수 있으며 교사들이 학년전담제 운영으로 학교 업무나 교재 연구 등에 들이는 시간이 절약되어 심리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진다면 아동들을 위한 교육활동에만 전념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6> 학년전담제 운영 방법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2년이 적정하다	3-4년이 적정하다	가능하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이 좋다	계	비고
교원	173	154	55	41	423	$\chi^2 = 2.841$ df=3 p=.417 c=0.064
	(40.9)	(36.4)	(13.0)	(9.7)	(62.0)	
학부모	102	93	28	35	258	
	(39.5)	(36.1)	(10.9)	(13.6)	(38.0)	
계	275	247	83	76	681	
	(40.4)	(36.3)	(12.2)	(11.1)	(100)	

학년전담제 운영 방법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는 <표 36>에 나타난 바와 같다.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찾을 수 없으며 학년전담제 운영 방법에 대한 인식 경향을 전체적으로 보면 교원과 학부모 모두 “2년이 적정하다(교원 40.9%, 학부모 39.5%)”를 우선으로, “3-4년이 적정하다(교원 36.4%, 학부모 36.1%)”가 다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교원은 “가능하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13.0%)”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이 좋다(9.7%)”고 응답했고 학부모는 세 번째의 순으로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이 좋다(13.6%)” 가능하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10.9%)”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년전담제의 문제점인 연구의 태만이나 같은 학년을 매년 반복하는 지루함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짧은 기간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효율적인 학년전담제의 운영 실시를 위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37> 교과전담교사제 확대 실시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214 (50.6)	125 (29.5)	68 (16.1)	14 (3.3)	2 (0.5)	423 (62.0)	$\chi^2 = 92.881$ * * * df=4 p=.001 c=0.346
학부모	40 (15.4)	147 (56.8)	48 (18.5)	23 (8.9)	1 (0.4)	259 (38.0)	
계	254 (37.2)	272 (40.0)	116 (17.0)	37 (5.4)	3 (0.4)	682 (100)	

* * * p<.001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 사이에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원의 80.1%와 학부모의 72.2%가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교과전담제 확대 실시를 매우 높게 지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년전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과전담제를 확대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8> 수업 시수 경감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15시간 이하	16-20시간	21-25시간	26-30시간	계	비고
교원	94 (22.2)	227 (53.7)	102 (24.1)	0 (0.0)	423 (62.0)	$\chi^2 = 51.310$ * * * df=3 p=.001 c=0.265
학부모	45 (17.4)	99 (38.2)	95 (36.7)	20 (7.7)	259 (38.0)	
계	139 (20.4)	326 (47.8)	197 (28.9)	20 (2.9)	682 (100)	

* * * p<.001

<표 38>은 학년전담제와 교과전담제의 병행 확대 실시로 수업 시수가 경감된다면 몇 시간이 적당할 것인가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결과다.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의 수업 시수 경감에 대한 본 조사 결과는 교원과(53.7%) 학부모(38.2%) 모두 “16-20시간”을 우선으로, “21-25시간”을 다음으로(교원 24.1%, 학부모 36.7%)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년전담제 운영의 적정 수업 시수는 교사 1인당 주당 16-20시간이라고 본다. 두 집단 사이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교원의 경우 26시간 이상이라는 반응이 0.0%인데 비하여 학부모는 7.7%가 26-30시간에 반응하여 교원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교과전담제를 확대 실시하여 수업 시수를 현행보다 더욱 줄여서 운영을 한다면 효율적인 학년전담제가 정착 될 것임을 시사한다.

<표 39> 교과목 축소 조정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5과목 이하	6과목	7과목	8과목 이상	계	비고
교원	244 (57.7)	134 (31.7)	42 (9.9)	3 (0.7)	423 (62.0)	$x^2 =$ 35.355 * * * df=3 p=.001 c=0.222
학부모	96 (37.1)	114 (44.0)	36 (13.9)	13 (5.0)	259 (38.0)	
계	340 (49.9)	248 (36.4)	78 (11.4)	16 (2.3)	682 (100)	

* * * $p<.001$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10개 이상의 교과를 가르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지도 내용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과목 수를 축소 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본 조사에서 “교육 정책적으로 교과전담제 교사 수를 늘려서 학년전담제와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면 주당 수업 시간이 줄게 되므로 지도 과목 수도 줄게 됩니다. 이때 몇 과목이 가장 적당

<표 38>은 학년전담제와 교과전담제의 병행 확대 실시로 수업 시수가 경감된다면 몇 시간이 적당할 것인가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결과다.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의 수업 시수 경감에 대한 본 조사 결과는 교원과(53.7%) 학부모(38.2%) 모두 “16-20시간”을 우선으로, “21-25시간”을 다음으로(교원 24.1%, 학부모 36.7%)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년전담제 운영의 적정 수업 시수는 교사 1인당 주당 16-20시간이라고 본다. 두 집단 사이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교원의 경우 26시간 이상이라는 반응이 0.0%인데 비하여 학부모는 7.7%가 26-30시간에 반응하여 교원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교과전담제를 확대 실시하여 수업 시수를 현행보다 더욱 줄여서 운영을 한다면 효율적인 학년전담제가 정착 될 것임을 시사한다.

<표 39> 교과목 축소 조정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5과목 이하	6과목	7과목	8과목 이상	계	비고
교원	244 (57.7)	134 (31.7)	42 (9.9)	3 (0.7)	423 (62.0)	$x^2 =$ 35.355 * * * df=3 p=.001 c=0.222
학부모	96 (37.1)	114 (44.0)	36 (13.9)	13 (5.0)	259 (38.0)	
계	340 (49.9)	248 (36.4)	78 (11.4)	16 (2.3)	682 (100)	

* * * $p<.001$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10개 이상의 교과를 가르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지도 내용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과목 수를 축소 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본 조사에서 “교육 정책적으로 교과전담제 교사 수를 늘려서 학년전담제와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면 주당 수업 시간이 줄게 되므로 지도 과목 수도 줄게 됩니다. 이때 몇 과목이 가장 적당

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하는 설문에 대한 결과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9>에 나타나 바와 같이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의 교과목 수 축소 조정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교원은 5과목 이하(57.7%), 6과목 (31.7%), 7과목(9.9%), 8과목 이상(0.7%)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부모는 6과목(44.0%), 5과목 이하(37.1%), 7과목(13.9%), 8과목 이상(5.0%)의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초등학교 아동에게 지도해야 할 교과목 수가 많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효율적인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5-6과목 정도로 교과목 수를 줄여야 함을 시사한다.

<표 40> 초과 수업 시수에 따른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247 (58.4)	124 (29.3)	40 (9.5)	11 (2.6)	1 (0.2)	423 (62.0)	$\chi^2 = 229.589 * * *$ $df=4$ $p=.001$ $c=0.502$
학부모	12 (4.6)	111 (42.9)	80 (30.9)	51 (19.7)	5 (1.9)	259 (38.0)	
계	259 (38.0)	235 (34.4)	120 (17.6)	62 (9.1)	6 (0.9)	682 (100)	

* * * $p<.001$

<표 40>에 의하면 교과전담교사제의 확대 실시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당 수업 시수를 초과하여 수업한 교사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선행 조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분석 결과 집단간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원은 87.7%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학부모는 47.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교원과는 매우 다른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학년에 비하여 많은 수업 시수와

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하는 설문에 대한 결과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9>에 나타나 바와 같이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의 교과목 수 축소 조정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교원은 5과목 이하(57.7%), 6과목 (31.7%), 7과목(9.9%), 8과목 이상(0.7%)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부모는 6과목(44.0%), 5과목 이하(37.1%), 7과목(13.9%), 8과목 이상(5.0%)의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초등학교 아동에게 지도해야 할 교과목 수가 많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효율적인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5-6과목 정도로 교과목 수를 줄여야 함을 시사한다.

<표 40> 초과 수업 시수에 따른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247 (58.4)	124 (29.3)	40 (9.5)	11 (2.6)	1 (0.2)	423 (62.0)	$\chi^2 = 229.589 * * *$ $df=4$ $p=.001$ $c=0.502$
학부모	12 (4.6)	111 (42.9)	80 (30.9)	51 (19.7)	5 (1.9)	259 (38.0)	
계	259 (38.0)	235 (34.4)	120 (17.6)	62 (9.1)	6 (0.9)	682 (100)	

* * * $p<.001$

<표 40>에 의하면 교과전담교사제의 확대 실시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당 수업 시수를 초과하여 수업한 교사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선행 조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분석 결과 집단간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원은 87.7%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학부모는 47.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교원과는 매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학년에 비하여 많은 수업 시수와

학년 사무 등에 불만을 가져온 고학년 교사들이 경제적으로나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학부모는 교사들은 경제적 보상을 떠나 희생과 봉사로 아동 교육에 임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저학년을 기준으로 주당 초과 수업 시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1>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고학년 담임 수업 시수 경감	교사 잡무 경감	초과 수업에 대한 수당 지급	지도 교과목 수 축소	계	비고
교원	142 (33.6)	155 (36.6)	71 (16.8)	55 (13.0)	423 (62.0)	x ² = 48.144 * * * df=3 p=.001 c=0.257
학부모	34 (13.1)	150 (57.9)	29 (11.2)	46 (17.8)	259 (38.0)	
계	176 (25.8)	305 (44.7)	100 (14.7)	101 (14.8)	682 (100)	

* * * p<.001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담임제로는 아동의 교과 및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년전담제가 확대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고 학년전담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 당국이 교육 과정 운영의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 결과는 <표 41>과 같으며, 두 집단간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원과 학부모 모두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교사 잡무 경감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교원 36.6%, 학부모 57.9%). 다음 순위로는 교원은 고학년 담임 수업 시수 경감(33.6%), 초과 수업에 대한 수당 지급(16.8%), 지도 교과목 수 축소(13.0%)라고 반응했고 학부모는 지도 교과목 수 축소

(17.8%), 고학년 담임 수업 시수 경감(13.1%) 초과 수업에 대한 수당 지급(11.2%)의 순으로 응답하여 교원과 견해가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학부모는 정책 결정의 해결 과제에서도 초과 수업에 대한 수당 지급을 최하위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과 학부모 모두 교사 직무 경감을 최우선 순위로 반응하여 교과전담제의 선행 조건으로서 교사의 직무 경감을 우선으로 해결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42> 정책 결정 과제의 해결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교육 행정 당국의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	교사의 학년전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학교경영자의 학년전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학부형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계	비고
교원	236 (56.1)	68 (16.1)	111 (26.4)	6 (1.4)	421 (61.9)	x ² = 83.328 * * * df=3 p=.001 c=0.330
학부모	87 (33.6)	98 (37.8)	45 (17.4)	29 (11.2)	259 (38.1)	
계	323 (47.5)	166 (24.4)	156 (22.9)	35 (5.2)	680 (100)	

* * * p<.001

<표 42>의 “학년전담제 운영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누구에게 가장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는 집단간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원이 보인 반응을 보면 “교육행정 당국의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56.1%), 학교 경영자의 학년전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26.4%), “교사의 학년전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16.2%), “학부형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1.4%)의 순으로 응답했고 학부모는 “교사의 학년전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37.8%), “교육행정 당국의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33.6%), “학교 경영자의 학년전담제에 대

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17.4%), “학부형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11.2%)의 순으로 반응하였다.

교사들이 정책 결정과 학교 경영자의 의지를 우선 순위로 꼽은 것은 오랫동안 공직 사회에서 일해온 풍토의 한 일면을 엿볼 수 있으며 학부모가 우선 순위로 꼽은 “교사의 학년전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37.8%)는 응답은 교사의 의지와 이해가 있다면 교육에 대한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차이라고 해석된다.

교사들의 경우만을 본다면 학년전담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 당국의 정책 결정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표 43> 수업 기술의 향상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116 (27.4)	209 (49.4)	80 (18.9)	16 (3.8)	2 (0.5)	423 (62.0)	$\chi^2 = 71.464 ***$ $df=4$ $p=.001$ $c=0.308$
학부모	16 (6.2)	126 (48.7)	75 (28.9)	40 (15.4)	2 (0.8)	259 (38.0)	
계	132 (19.4)	335 (49.1)	155 (22.7)	56 (8.2)	4 (0.6)	682 (100)	

*** p<.001

<표 43>에 의하면 학년전담제 실시로 수업기술이 향상될 것이라는 효과성에 대한 설문에 대한 반응은 교원과 학부모간에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76.8%의 교원이 수업 기술의 향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 학부모는 54.9%가 긍정적인 반응을, 29.0%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교원과는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0개 이상의 교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이 학년전담제의 실시로 같은 학년을 반복하여 가르침으로써 수업 기술이 향상될 것이라고 느끼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학부모는 학년전담제의 실시가 수업 기

술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4> 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 증진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140 (33.1)	171 (40.4)	80 (18.9)	27 (6.4)	5 (1.2)	423 (62.0)	x ² = 49.216 * * * df=4 p=.001 c=0.259
학부모	25 (9.7)	134 (51.7)	70 (27.0)	27 (10.4)	3 (1.2)	259 (38.0)	
계	165 (24.2)	305 (44.7)	150 (22.0)	54 (7.9)	8 (1.2)	682 (100)	

* * * p<.001

학년전담제 실시가 주는 효과로 학년에 정통한 학년전문가를 양성시켜 교사의 전문성과 아동 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설문에 대한 인식 차이 결과는 <표 44>와 같다.

집단간 유의 수준을 검증한 결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의 반응을 보면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항목에 교원의 73.5%와 학부모의 61.4%가 반응하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교원이 18.9%, 학부모가 27.0%로 반응하고 있어 교원과 학부모 모두 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 증진에 대한 인식을 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5> 학년전문가 양성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131 (31.0)	193 (45.6)	76 (18.0)	22 (5.2)	1 (0.2)	423 (62.0)	x ² = 73.022 * * * df=4 p=.001 c=0.311
학부모	16 (6.2)	124 (47.9)	84 (32.4)	32 (12.4)	3 (1.1)	259 (38.0)	
계	147 (21.6)	317 (46.5)	160 (23.4)	54 (7.9)	4 (0.6)	682 (100)	

* * * p<.001

<표 45>의 반응을 보면 집단간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의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성이 신장되어 학년전문가를 양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원이 76.6%로 비교적 높게 반응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경우에는 54.1%가 긍정적인 반응을, 32.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교원과는 견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만을 본다면 학년전담제 실시의 효과로 학년전문가 양성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46> 자료의 활용에 대한 효과성 인식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136 (32.2)	199 (47.0)	74 (17.5)	12 (2.8)	2 (0.5)	423 (62.0)	$\chi^2 = 65.458 * * *$ $df=4$ $p=.001$ $c=0.296$
학부모	28 (10.8)	122 (47.1)	71 (27.4)	35 (13.5)	3 (1.2)	259 (38.0)	
계	164 (24.0)	321 (47.1)	145 (21.3)	47 (6.9)	5 (0.7)	682 (100)	

* * * $p < .001$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해마다 구입 및 제작된 자료는 담당했던 학년이 바뀌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수업 시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제작하여 활용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전담제 운영의 자료 활용 효과에 대한 인식 경향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원의 79.2%와 학부모의 57.9%가 그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학년전담제가 확대 실시되면 해마다 구입 및 수집 제작된 자료를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표 47> 자료의 보관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192 (45.4)	169 (40.0)	45 (10.6)	16 (3.8)	1 (0.2)	423 (62.0)	x ² = 57.591 * * * df=4 p=.001 c=0.279
학부모	45 (17.4)	148 (57.1)	48 (18.5)	15 (5.8)	3 (1.2)	259 (38.0)	
계	237 (34.8)	317 (46.5)	93 (13.6)	31 (4.5)	4 (0.6)	682 (100)	

* * * p<.001

<표 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85.4%의 교사와 74.5%의 학부모가 학년 전담제 실시로 자료 보관에 대한 효과를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해마다 학년이 바뀔에 따라 구입 및 수집 제작된 자료를 보관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나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자료를 보관 관리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두 집단간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8> 공·사교육비 절감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132 (31.2)	167 (39.5)	93 (22.0)	30 (7.1)	1 (0.2)	423 (62.0)	x ² = 29.839 * * * df=4 p=.001 c=0.205
학부모	34 (13.1)	126 (48.7)	69 (26.6)	28 (10.8)	2 (0.8)	259 (38.0)	
계	166 (24.3)	293 (43.0)	162 (23.8)	58 (8.5)	3 (0.4)	682 (100)	

* * * p<.001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매년 학년 담임이 바뀌기 때문에 당해 학년 교과 지도에 수집 및 제작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므로 학교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학생들도 스스로 준비물을 마련하게 되어 공·사 교육비가 많이 들고 있다.

<표 48>에서 보듯이 집단간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두 집단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면 교원의 70.7%와 학부모의 61.7%가 학년전담제 실시로 공·사 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해마다 학년을 바꿔가며 담임할 때 사장되는 자료를 학년전담제를 운영함으로써 활용 보관 관리하여 공·사 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함을 시사한다.

<표 49> 교재 연구의 시간 및 노력절감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157 (37.1)	198 (46.8)	52 (12.3)	14 (3.3)	2 (0.5)	423 (62.0)	$\chi^2 = 96.089 * * *$ $df=4$ $p=.001$ $c=0.351$
학부모	19 (7.3)	134 (51.8)	73 (28.2)	29 (11.2)	4 (1.5)	259 (38.0)	
계	176 (25.8)	332 (48.7)	125 (18.3)	43 (6.3)	6 (0.9)	682 (100)	

* * * $p < .001$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교재 연구나 지도 방법이 쉽게 되어 노력이 많이 절감될 것이다”는 설문에 대한 본 조사 결과는 <표 49>와 같다.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매년 같은 학년을 반복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교과 지식 구조를 잘 알게된다. 따라서 교재 연구나 지도 방법이 보다 쉬워질 것이므로 여기에 들이는 노력이 많이 절감되어 자기 연수의 충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본 조사에서 집단간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인식 차이는 교원의 83.9%와 학부모의 58.0%가 학년전담제 실시의 효과로 교사의 교재 연구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50> 자기연수의 충실에 대한 효과성 인식 차이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비고
교원	106 (25.1)	196 (46.3)	86 (20.3)	32 (7.6)	3 (0.7)	423 (62.0)	x ² = 60.801 * * * df=4 p=.001 c=0.286
학부모	10 (3.8)	123 (47.5)	87 (33.6)	37 (14.3)	2 (0.8)	259 (38.0)	
계	116 (17.0)	319 (46.8)	173 (25.4)	69 (10.1)	5 (0.7)	682 (100)	

* * * p<.001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교사의 심리적, 시간적 부담이 경감되어 자기 연수의 충실을 가져올 것이다.”에 대한 응답은 <표 50>과 같다.

<표 50>에 의하면 학년전담제 실시로 교사의 심리적, 시간적 부담이 경감되어 자기 연수의 충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에 대한 결과로 교원 71.4%와 학부모의 51.3%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반응하여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식의 차이분석 결과에서 두 집단간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원들이 자기 연찬과 연수를 충실히 할 수 있음을 높은 평균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비해 학부모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교사들의 연구 자세에 대한 신뢰가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교원들은 학부모의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나 아동 교육을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 연찬과 연수에 충실해야 함을 시사한다.

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학년전담제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요약 결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要約

첫째, 학년전담제 운영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인식에 있어서 학년전담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원은 69.3%, 학부모는 45.2%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임으로써 교원보다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었다. 교과활동과의 관련에 대한 인식은 교원이 87.5%, 학부모는 64.0%로 교원이나 학부모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학년전담제가 교과활동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년전담제 운영과 생활지도와의 관련에 대한 인식은 교원(85.9%)과 학부모(68.3%) 모두 학년전담제 운영으로 생활지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별활동과의 관련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은 교원은 63.6%, 학부모는 65.2%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학부모의 반응이 다소 높게 나타나 있다.

학년전담제 운영의 학교(급) 업무경감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에

서 교원은 62.7%, 학부모는 68.7%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학년전담제 운영으로 학년 배정의 애로점이 경감될 것이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교원의 70.9%와 학부모의 52.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교원의 기대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학년 배정에 따른 교사 상호간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는 설문에 대한 인식으로 47.1%의 교원과 학부모의 43.2%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반응하고 있어 학년전담제가 실시되어도 교사 상호간의 학년 배정에 따른 불만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학년전담제 운영으로 같은 학년을 계속 담임하게 될 때 교사의 연구 태만에 대하여 교원의 43.7%와 학부모의 62.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년전담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교원에 비하여 학부모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학년전담제 운영 방법에 대한 인식은 교원과 학부모 모두 “2년이 적정하다”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둘째, 학년전담제 실시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교과전담제 확대 실시에 대해 교원의 80.1%와 학부모의 72.2%가 매우 높게 반응하고 있다. 수업 시수 경감에 대한 결과는 교원과(53.7%) 학부모(38.2%) 모두 “16-20시간”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교과목 수 축소 조정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교원은 5과목 이하(57.7%)에, 학부모는 6과목(44.0%)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교과전담교사제의 확대 실시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당 수업 시수를 초과하여 수업한 교사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교원은 87.7%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학부모는 47.5%로 교원과 매우 다른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책 과제에 있어서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교사 잡무 경감을 우선 순위로 꼽았고(교원 36.6%, 학부모 57.9%), 정책 결정 과제의 해결책임에 대한 인식은 교원이 56.1%로 “교육행정 당국의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에 가장 높게 반응하였고 학부모는 37.8%로 “교사의 학년전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에 가장 높게 반응하였다.

셋째, 학년전담제 실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학년전담제 실시로 수업기술이 향상될 것이라는 효과에 대하여 76.8%의 교원과 54.9%의 학부모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의 전문성과 효과성 증진에 대한 인식은 교원이 73.5%, 학부모 61.4%가 효과가 있다고 반응하고 있으며, 학년전문가를 양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원은 76.6%, 학부모는 54.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료 활용 효과에 대한 인식으로는 교원의 79.2%와 학부모의 57.9%가 그 효과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자료의 보관에 대한 효과성 인식 면에서는 85.4%의 교사와 74.5%의 학부모가 효과가 높을 것으로 반응하였고, 공·사 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교원의 70.7%와 학부모의 61.7%가 학년전담제 실시로 공·사 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응하였다.

교재 연구의 시간 및 노력 절감의 효과에 대한 인식에서는 교원의 83.9%와 학부모의 58.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년전담제 실시로 교사의 심리적, 시간적 부담이 경감되어 자기 연수의 충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은 교원 71.4%와 학부모의 51.3%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에 반응하여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結 論

이상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전담제 운영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인식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년전담제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학년전담제를 운영하면 매년 반복하여 교과를 지도하기 때문에 교과의 지식 구조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며, 특별활동에도 효과가 높고 아동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에 교원의 업무가 경감된다. 학년전담제의 운영 방법으로는 2년 이상 같은 학년을 반복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학교 경영자는 학년 배정에 대한 애로점을 경감시킬 수 있다.

둘째, 교원과 학부모가 인식한 학년전담제 실시를 위한 선행 조건은 교과전담교사 수를 늘려서 교사 1인당 주당 수업 시간 수를 대폭 줄여서 운영하고 지도 교과목 수도 5-6과목 정도로 줄여 운영을 한다면 효율적인 학년전담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았다. 학년전담제가 확대 실시되려면 교사들의 업무량을 크게 경감 시켜야 하며 학년전담제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 당국의 정책적인 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년전담제 실시의 효과로는 당해 학년의 교육과정 내용을 잘 알게 됨으로 교사들의 수업 기술이 향상되고,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효과성이 증진되어 학년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고 본다. 해마다 구입 및 수집 제작된 자료를 수업 시간에 보관·활용할 수 있어서 공·사 교육비가 절감되고 수업 외 잡무도 경감된다고 본다. 따라서 교사의 심리적 시간적 부담이 경감되어 자기 연수의 충실을 가져오게 되나 반복되는 학년담임으로 인한 연구의 태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3. 提 言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토대로 학년전담제 운영 실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년전담제에 대해 많은 교육적 장점이 밝혀졌다.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를 학년전문가로서 특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청된다.

둘째, 학년전담제의 장점을 살려 교사는 자기 연찬에 충실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창의성을 길러주며 자료의 활용과 보관으로 공·사 교육비의 경감까지 가져와야 하겠으며 이러한 운영으로 바꾸는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학년전담제 실시에 앞서 교과전담제를 확대 실시하여 학년 주당 수업 시수를 저학년 기준으로 학년 차이에 따른 불균형의 수업 부담을 개선하는 행정적 조정력이 요청된다.

參 考 文 獻

國 內 文 獻

- 곽병선, 초등교육 내실화 방안 탐색 기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2.
- 교육행정학회, 학교 학급 경영론, 서울 : 하우, 1996.
- 김기열, “초등학교 학년전임교사제 실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학사, 1982.
- 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1983.
- 김창걸, 교육행정학, 서울: 박문각, 1985.
- 김창걸, 교육행정학신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2.
- 남억우 외, 교사론, 서울 : 교육출판사, 1984.
- 대구대산초등학교 학급편성 및 담임배정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학생의 욕구 · 소질에 따른 학급편성 및 담임배정”, 1977.
- 문낙진, 학교 · 학급경영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출판사, 1995.
- 박복수, “초등학교 학년 전담제 운영을 위한 선행조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박승열, “국민학교 경영조직에서 학급편제 및 담임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 박영숙, 박인종, 초 · 중등 교육 국제 비교,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7.
- 박정주, “바람직한 교사상과 자질문제”, 교육연구, 1982, 11월호, 서울 : 교육연구사, 1982.

- 이강군, “학급담임 배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 이병진, “초등 교사의 전문성과 교과 교육의 과제”, 초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초등 교원의 위상 정립, 제 1회 초등교육 세미나, 1992.
- 이성진, “교육방법의 효율화,” 초·중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세미나,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3.
- 이영덕, 교육의 과정 서울: 배영사, 1984.
- 정수원, “초등교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학교발전연구회, 대구대산초등학교 학급편성 및 담임배정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학생의 욕구·소질에 따른 학급편성 및 담임배정”, 1977물 제 2호, 1997.
- 정태범,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 제 15회 교육행정학 학술세미나 논문집 1987.
- 정태범, “초등교원 양성교육과 초등교과 교육”, 국제초등교육 학술대회 자료집 1994.
- 정태범, 배종근, 교육행정·교육경영, 서울 : 정민사, 1989.
- 정학미, “초등학교 학년전담교사제의 시행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제주북초등학교 시범운영보고서, “학급편성 및 학년전담제 운영을 통한 교수-학습력 신장”, 1977.
- 조성일, 김영출, 교육행정과 학교·학급경영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재동문화사, 1997.
- 최영자, “국민학교 학급담임 선정에 관한 기초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최희선, 학교 학급경영, 서울: 형설출판사, 1996.

최희선, 학교·학급경영, 서울 형설출판사, 1988.

홍응선, 신교육과정의 연구, 서울 : 연세대 출판부, 1986.

外 國 文 獻

Michael W. Kirst, Policy Perspectives, America 2000,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F Rendle and W W Wattenbenberg, Mental Hygiene in Teaching,

N Y Harcourt, Brac and CO, 1952.

E. Spranger, 「천부적인 교사」, 김재만 譯, 서울 : 배영사, 1981.

Judson T. Shaplin and Henry F. Olds, Jr eds, Team Teaching,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4.

<부 록>

초등학교 학년전담제 운영에 관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조사 연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초등학교 학년전담제 운영에 관한 선생님과 학부모님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설문 조사 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러 설문 사항에 사실대로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 3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박 애 숙 드림

1. 기초조사 (해당란에 √표, 학부모님은 1번과 3번만 표기)

1. 성 별 :	① 남 ()	② 여 ()
2. 교직경력 :	① 10년 이하 ()	② 11-20년 ()
	③ 21년 이상 ()	
3. 대 상 :	① 교원 ()	② 학부모 ()
4. 동일 학년을 2년 이상 연임한 경험 :	① 있다 ()	② 없다 ()

2. 설문조사 (해당란에 V 표)

문 항 번 호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1	현재 초등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년순환제 대신 학년 전담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매년 반복하여 교과를 지도하기 때문에 해당 학년의 교과 교육에 더욱 정통할 수 있다.					
3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당해 학년 아동의 성장 단계에 맞는 보다 전문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교과 활동면에서 수업기술이 향상되고 교육과정 운영이 한층 쉬워질 것이다.					
5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특별 활동면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학년 전문가를 양성시켜 교사의 전문성과 아동 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7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학교(급) 업무면에서 업무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절감될 것이다.					
8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매년 구입 및 수집 제작된 자료는 활용 가치가 있어 모두 보관할 것이다.					
9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매년 축적된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의 활용으로 수업시간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다.					
10	학년전담 교사에 의해 해마다 축적된 자료는 학교 교육비의 절감을 가져올 것이다.					
11	전학년 주당 수업 시간 수를 비슷하게 하여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학교 경영자의 학년 배정에 대한 애로 사항을 경감시켜 줄 것이다.					
12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교재 연구나 지도 방법이 쉽게 되어 노력이 많이 절감될 것이다.					
13	학년전담제의 실시는 같은 학년을 계속 담임하게 되므로 교사의 교재 연구나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를 태만히 할 우려가 있다.					

14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교사의 심리적, 시간적 부담이 경감되어 자기 연수의 충실을 가져올 것이다.					
15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면 교사의 수업 기술은 향상될 것이다.					
16	학년전담제 실시는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어 학년 전문가를 양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17	학년전담제가 실시되려면 고학년에서 교과전담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18	교과전담제의 확대실시가 여의치 못하였을 경우 고학년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저학년 기준으로 초과 수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9	학년전담제 실시는 담임 배정을 둘러싼 교사 상호간의 갈등과 불만 등을 줄어뜨리게 할 것이다.					

20. 향후 교육정책으로 교과전담제 교사 수를 더욱 늘려서 학년전담제와 병행하여 실시한다면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간은 몇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5시간 이하
- ② 16-20시간
- ③ 21-25시간
- ④ 26-30시간

21. 교육 정책적으로 교과전담제 교사 수를 늘려서 학년전담제와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면 주당 수업 시간이 줄게 되므로 지도 과목 수도 줄게 됩니다. 이때 몇 과목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과목 이하
- ② 6과목
- ③ 7과목
- ④ 8과목 이상

22. 효율적인 학년전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당국이 교육과정 운영의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학년 담임 수업 시수 경감
- ② 교사 잡무 경감
- ③ 초과 수업에 대한 수당 지급
- ④ 지도 교과목 수 축소

23. 효율적인 학년 운영을 위해 학년전담제는 몇 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년이 적정하다
- ② 3-4년이 적정하다
- ③ 가능하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
- ④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이 좋다

24. 학년전담제 운영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누구에게 가장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행정 당국의 정책 결정에 달려 있다.
- ② 교사의 학년전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 ③ 학교 경영자의 학년전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 ④ 학부형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Operating Realities of the Grade Teacher System in Elementary School

Park, Ae-sook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operating realities of the grade teacher system in elementary school. For the purpose, this study used the questionnaire research method. To process data from the questionnaire research, this study used the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 and conducted percentage and chi square test by teacher's background factor.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tested for intergroup difference at the level of $P<.05$, $P<.01$, $P<.001$. The contingency coefficient was confirmed. Based upon the study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First,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eachers and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operation of the grade teacher system. As a

result, elementary teachers felt the necessity for the operation of the grade teacher system. It is easy to identify the knowledge structure of the subject because it is taught to schoolchildren repeatedly every year if the grade teacher system is operated. It is highly effective in special activity and teachers' workload is reduced in learning-teaching and guidance. They thought that it is desirable to provided repeated instruction to the same school year of more than the 2nd grade as the operating method of the grade teacher system. Therefore, school administrators can reduce the impediments in the assignment of the school year.

Second, teachers and parents perceived that the precondi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grade teacher system was to increase he number of departmental teachers, reduce the number of weekly school hours per teacher to 20 hours for its operation and reduce the of subjects to 5 or 6 ones. If the grade teacher system is to be expanded and implemented, teachers' workload should be greatly diminished. And first of all,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thority should make a policy decision on the operation of the grade teacher system.

Third, the effect of implementing the grade teacher system included improvement of teachers' teaching skills by becoming familiar with the content of the curriculum of the school year, its ability to train and educate school-year specialists through the increase of

teachers' speciality and educational effectiveness. It can diminish public and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and miscellaneous school workload through the storage and utilization of annually purchased and collected teaching materials in school hours. Consequently, it can relieve teachers of psychological and time constraints and bring about commitment to self-training but give rise to negligence in research arising from serving as the teacher in charge of the same school year and the lik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for the safeguard to prevent them from occurring.